옥수몽 권지삼

Carpentier

낭한 님사책칠문 울상셔의쾽녀혼
시ᄂᆞ의상이인져을가ᄲᅮᆯ이ᄉᆡᆸ오시래칠이꼿고
셜셰하나도ᄐᆡᆫ섬의ᄒᆞᆫ거이ᄂᆞ사예ᄉᆞ믈굴옵
키령연셔져엽는지라ᄑᆞᆯ양이불열허셔ᄃᆡ
창국의즐을보시러니희되칠허사월이즐
이국히간령의안ᄎᆡᆨ리울젹의술이나점의늦
그럼저아닐거라이제안동낭줏석거산을엇어
도라허시ᄂᆞᆫ친이비봉을ᄯᅢ이스러흥노조칠ᄌᆞ의
창병허여ᄒᆡ일노불오시나낭션이당ᄒᆞᆫ쳔의
혹간ᄒᆞᆫ여산호ᄇᆞᆫ체ᄒᆞᆫ여가ᄒᆞ고황의병이족허
뒤창구을나히여러그려ᄒᆞᆫ을빗거못허

올거라맛당이어쳔의쳐라사자어서협혀
ᅵ가헐가허나이라상이쳠옹허실셔낭광슈
이복복쥭왈쇼신의그릇허온졔학으로되람
이갑라의참방을요여셩쥬의턱인허시는바의
어긔엿슨오매쏘한신쳐되니슨즐거도의라흔지
복을즛드어지리언연이갑라의참내터리잇ᄂ
복원헤하는샤의라가을사허오ᄂ든의거즐
저흉올징계계허쇼셔상이의옥허시ᄅ황가로
올조허보보사왈황국의배록변쇼허나쳥취한
회되노슨슉우졸강계못헐거시어지변괴라
쇼의잇서러오당ᄂ이김을보과훈여보칼지신

이되리라ᄒᆞ시ᄃᆞ어화쳥삼을ᄉᆞ금ᄃᆞ시녀ᄃᆞᆫ병쳘ᄒᆞᆫ
남학ᄉᆞ올졔숏ᄒᆞᄂᆞ저금셕졔일방갑졔올ᄉᆞ졔즐
시니한님이촉ᄉᆞ부즁에홍로옥리로ᄉᆞ은ᄒᆞ기울
ᄡᅳᆺ쇠녀ᄒᆞ라방화울갓ᄂᆞ되어주ᄂᆞ울라ᄃᆞ녀외원ᄒᆞᆫ약
울알쇠옥을ᄌᆞ금방ᄉᆞ쇠로나울시길의구경ᄒᆞᄂᆞᆫ
져길이메여낭한낭의옥모영ᄋᆞ롱라영화울광찬
이ᄋᆞ리념ᄃᆞ라해쳐외이르나영광울그헐ᄃᆞ저얼
ᄂᆞᆫ지라문젼의거되ᄀᆞᆯ음갓흐여하셩이봄ᄂᆞᄒᆞ리라
좌외황ᄀᆞ노의동서불ᄃᆞ려나낭한님이화ᄂᆞ당영자
로여좌쳥ᄒᆞ녀ᄀᆞ녀쌀회ᄂᆞᆫ님의외금일ᄒᆞ명을일
쇄외빗나니오라겨어이노부외ᄋᆞᆫ리외울울저

너ᄌᆞ가의ᄃᆞ인ᄒᆞ신병셔이어되오연이아앗가느
복의탐현의실ᄎᆡᄒᆞ니ᄆᆞᆫ오믈노ᄒᆞ고ᄆᆞᆯ나이냥
ᄒᆞᆨᄉᆞ의져조ᄋᆞᆯ더욱빗나기를즁인의ᄆᆞᄋᆞᆷ이ᄒᆞᆫ갓
되지아니ᄒᆞ셔후의ᄇᆞᆯ이영ᄒᆞᆫᄒᆞ니박오니라ᄒᆞ믈치
ᄲᆞᆯ나한님이ᄒᆞ뢰ᄋᆞᆯ즁ᄒᆞ혼ᄉᆞ부담이라황각
ᄉᆞᆨ어본담의집으로ᄂᆞ로라ᄒᆞᆯ로리가ᄂᆞ라이일한
님이셜젼본의욱가ᄒᆞᆯ셔믄ᄒᆡ황각노ᄋᆞᆯ차질셔
각뫼흔연랑ᄃᆡᄒᆞ며진슉셩친오로ᄃᆡ졉ᄒᆞ더창를
간관비현거시아니더라ᄉᆞᆯ이슉비의각각본ᄋᆞᆯ학
셔이ᄃᆡ욕본의근동ᄒᆞ니ᄲᆞ랑이셩홈을나ᄐᆞ내여
존복을경ᄒᆡ로보실지라어나ᄒᆡ어니ᄉᆞ짐ᄒᆞᄒᆡ혀

난초한님이리왈가친이산속의쑥을두사변니
탐연히시어경션열오히놀길져안어시눈거라
쇼셔의임의어로쇼이다각뫼옷드셩의손을잡
아왈노뵈한말이잇시니학산의쏫의엇더하뇨
노뵈그릐의일내어셔범절이츅하고즌의건출
을밧들싸하니보건대그데니측힌가즐논니건ᄃᆞ
효연을뫼간대욕듯혐ᄂᆞ처를그라한남이쳥화와
션각하대황각노는탐귀낙체하는인물이어늘
취죄인난날마올홍낭의울시쳡리히니비슉혈
거시뫼나관짜그손랑이업다흘여쳐바뢰논오히내고져
왈우효로부모계시니고죄안나코엇지자각

결단ᄒᆞ더이ᄃᆞ각뇌왈노복어지ᄂᆞᆫᄌᆞ리온
다만그ᄃᆡ의ᄒᆡᆼ을알ᄃᆞᄒᆡᆼᄒᆡ라금일낫참ᄌᆞ옹ᄃᆞᆫ
여발언ᄒᆞ니일언을엇기지알나한남이정셕기
왈ᄒᆞᆫ인온인츙더서라부보거ᄃᆞᆫ치어로어ᄉᆞ기ᄒᆡ
락ᄒᆡ리이ᄃᆞ각뇌부연불나이러라ᄒᆞᆫ남이ᄒᆞ직ᄒᆞ고
셩각건대황각노의셰ᄃᆞᆺ이즘현거라만일지완다
가ᄂᆞᆫ불의지뢰셩길지나올상셔을ᄎᆞᄌᆞ보아의ᄒᆡᆼ을
엿보디라ᄒᆞᄃᆞ올부의가병ᄒᆞᆷ을뢰라이올증이여ᄒᆡ
좌평후을증이쇼왈근이누욕을거여헐ᄎᆞ나한남
이ᄯᅢ쇼뎨왈시셩이시인누젹으로알강졍상의셔
ᄒᆞᆫ안을뵈온듯ᄒᆞ오니어지이ᄅᆞ리잇가상셰ᄒᆞ면

소왈그순이십삭사가간하순의궁뒤염연장ᄒ여불
나보게되엿도다실가의나올평ᄒ여엿실거시너ᄀ길
라평ᄒ허조한냄이리왈진이한니러므로아직정혼
헌데영나이라울승왈군이ᄃ록편지거의족년이
하여너쳐근친허쳐허난본한냥이뒤왈조정의
얄미올어둔혹ᄒ시가러허나이다인허여하직
헌대상쇠왈군이근친일을알아누복나아가작별
허퍼화허니한냥이그의형이잇시물집라ᄃ몬의
의나온여연욱다챵뒤미 젼의졀허며얼회얄비
터여도라셔며할ᄂ허거ᄂ출한냥이놀한즉연이허
셕이스라허왈한번효웅이란터가라나는축일로
향뫼근친허라가보와ᄒᄅ도라와결하의상

소허여ᄌᆞ괸니ᄅᆞᆯ뵈ᄋᆞᆸ고평허온대상이비하샤
시기한넘학ᄉᆞ냥창곡은집의ᄌᆞ바구ᄅᆞ시허ᄀᆞᆫ신하
라오뤼두지못허더니기부냥현으로네부원외랑
을빈허여본현의발부허여가하회장으로로치홍
허게ᄒᆞ라출시ᄃᆞ장원가을소홍줄여가퀘게하라
호시나한념이쳔은을감축허여ᄌᆞ근힝은니ᄂᆞᆫ혹ᄂᆞᆫ
홍근로봉셔을다가셔텽허여니퇴아시거ᄃᆞᆯ셔거
셔의왈 소ᄂᆞᆫ평궁이모혼을잇ᄉᆞ와일홈이강라
의모청허여뼈살이한원의을으모나여희을진
시ᄃᆞ리못ᄒᆞᆫ옹니는추츳빈외봉혼이정ᄒᆞᆫ와사
모지회을다못얼외오여로정의셔혼허ᄂᆞᆫ볼일

되나 쳔은이 조량ᄒᆡ ᄂᆞᆫ 달로 발비올 ᄒᆡ 최이여서
그ᄌᆡ 혱기바로 부쳐 강ᄉᆞ로 모이라 ᄒᆞ시니 왼노
의 ᄒᆡᆫ니올 보죵히 ᄉᆞ셔오려 죵고 되나아가 엿
족ᄒᆡ리이다 ᄒᆡ엿더라 고ᄒᆡᆼ의 ᄎᆞ셜ᄒᆞᄂᆞᆫ 죵남의여ᄎᆞ 현데가셔 치ᄒᆡ ᄒᆞ고 ᄉᆞ연이 이ᄉᆞᆫ ᄒᆡ라
통ᄌᆞ을 ᄎᆞ여보기니 동져 ᄎᆞ야 비로ᄒᆡ여 ᄀᆞ랑 본부의가
나ᄒᆡᄉᆞ 복ᄇᆡ아 ᄀᆞ을 보니ᄀᆞ ᄎᆞ아 잇지 못ᄒᆡ여 쉬월을
보니다가 이편지을 보ᄂᆞ 부ᄇᆡ리ᄒᆞ여셔 조회ᄒᆞ여
ᄂᆡ 죄ᄒᆡᆼ혜 ᄌᆞ을 쥐리더니 본편의셔 라 ᄂᆞ거 ᄌᆞ여금은
ᄒᆡ단으로 되의을 셩비ᄒᆞ여 이로ᄒᆡ ᄎᆞᆷ ᄉᆞ러 본ᄎᆞᄅᆞ니
편일 남ᄎᆡᄉᆞ 어디셔ᄉᆞ 근지 아올 ᄂᆡ 봇근이 이섯시
되오ᄒᆡ 혼ᄉᆞᆯ 방의라 그러나 ᄎᆡᄉᆞ의 ᄒᆡᆼ고지 심은

쳔흠이라 ᄀᆞ지ᄉᆞ잉ᄒᆞ고 ᄒᆞ신 보물 흥을 밧을 바
다 인ᄂᆡ 힝당을 작별ᄒᆞ며 본습ᄒᆞ고 발힝ᄒᆞᆯ 여복
ᄉᆞ이 황쳔지녕의 ᄂᆡ로ᄂᆡ 한넘이 ᄀᆞ노의 나아ᄂᆞᆫ 출ᄉᆡ
복인이 아ᄌᆞᆫ의 ᄒᆞᆫ을 잡아 반기이 ᄀᆞᆨᄒᆞ니 상연 숙족
ᄒᆞ여 우음이 상반이라 ᄒᆞ며 ᄂᆡ을 ᄎᆞᆺ지 아니ᄒᆞ여 장셔ᄂᆞᆫ
흑욱최로 아라 ᄀᆞᆨ년 별편의 거운ᄂᆡ리 ᄒᆞ여지리여
흠일 너을 보니 염연장복 굴조란의 ᄒᆡ 걱이 되엿서
ᄂᆡ 우리 ᄇᆞᆨ빅 비로소 셩셰지라 ᄒᆞ이 불일 ᄂᆡ출다 ᄒᆞᄂᆞᆫ 날이
모친 회리을 반지며 ᄒᆞᆫ을 밧드러 구숙을 ᄀᆞ출ᄂᆡ며 ᄀ
일출 출져ᄂᆡ 흑ᄀᆞᆨ년의 의로ᄒᆞ신 험ᄆᆞ편이 편 일ᄅᆞ다 ᄒᆞ로
셔니이다 소ᄌᆞ을 ᄂᆡᆺ지 못ᄒᆞ시이오 ᄂᆞᆯ 근ᄒᆞ신 최고로

이라ᄒᆡ신일보ᄒᆡ믈일ᄀᆞᆺ흰ᄂᆡ을ᄌᆡ후ᄉᆞᆯ여ᄇᆞᆫ부
조초ᄒᆡ을쉬거ᄂᆞ죠ᄎᆞᆼ이키조을덜ᄒᆡ시어면ᄒᆡ죵
진ᄒᆡ그ᄇᆡᆨ인이그ᄂᆞᆫ속의ᄒᆡ보ᄂᆞᆫ진봉을헌ᄃᆞᆺᄒᆡ복
ᄒᆡ더라잇집의이죵소ᄒᆞᆼᄒᆡ신집이시ᄒᆡ을ᄀᆞᆺ초상
죵믈ᄆᆡᆼ으로ᄒᆡ져ᄃᆞᆼ광ᄒᆡ미ᄃᆡ소장원가의게[illegible]
도ᄒᆡᄂᆡᄒᆡ소ᄂᆞᆫ그변ᄒᆡᄒᆡ믈깃거아니ᄒᆡ박인은선ᄋᆡ의
의ᄒᆡ용이라소ᄀᆡ의손ᄇᆡᆨ혈가족리더ᄒᆡ삭일ᄒᆞᆫ[illegible]
부러권ᄒᆡ의손을ᄒᆡ디상이ᄲᅧᆯ노어인견ᄒᆡ소ᄀᆞᆯ아
소ᄅᆡ경이ᄇᆡ록산님의은거ᄒᆡ여ᄒᆡᆫ옷의ᄯᅳᆺ리업다ᄒᆞᄂᆞ
아직ᄎᆞᄂᆞ히ᄉᆈ리이엿서어그의을ᄒᆞᆸᄒᆡ아라을즙게
ᄒᆞᆯ여집의ᄒᆡ믈이업게ᄒᆡ라ᄒᆡ쇠조ᄎᆞᆨ고국ᄉᆞᆯ

신이 본ᄃᆡ 질병이 잇ᄉᆞ와 ᄂᆞ라간 근직ᄒᆡ을 거ᄉᆡ이
업ᄉᆞ온ᄃᆡ 복원 현상은 벼살을 거ᄉᆞ 출회ᄒᆞᄂᆞᆫ 빗
그러ᄒᆞ여 엄게ᄒᆡ 출쳐 상이 우ᄋᆞ시ᄂᆞᆫ 갈아ᄉᆞ리 경이나
ᄒᆞ을 빗ᄂᆞᆯ 등 낭지 신을 두어 이 죄 빗치시ᄂᆞᆫ 군이
엄ᄃᆞ라 ᄒᆡᄃᆡ 보모로 니 신형을 조형ᄒᆡ여 국가을 보
좌ᄒᆡ라 원의 황운 뢰조ᄒᆡ여 지 상시 출ᄒᆡ여 벼살
을 ᄉᆞ양ᄒᆡᄂᆞᆫ 듯 원별당의 쳐ᄒᆡ여 의복 고 쳘을 한
ᄉᆞ 갓지 ᄒᆡ더라 이 셔ᄒᆞᆫ님이 복모을 나ᄃᆞᆼ의 복ᄉᆞ며
여 ᄒᆞᆫ이 출내 일ᄃᆞᆫ 조용이 발ᄉᆞᆷᄒᆞᆯ셔 ᄒᆡ 부인이
아ᄌᆞᆫ의 혼ᄉᆞ을 발ᄒᆡ 여왈 ᄯᅬ고 ᄀᆞᆫ의 일시 홍현 고ᄒᆞ
빗ᄃᆞᆼ 현훈ᄒᆡ을 듯보 ᄉᆞ이다 ᄒᆞᆫ님이 ᄃᆡ왈 ᄂᆞ소셔 ᄌᆞ면

다ᄉᆞᄒᆞ여 잇ᄎᆡ 근지 못ᄒᆞ엿ᄂᆞ니 이다연ᄒᆞ여 가거ᄆᆡ거ᄒᆡ
는길의 도적을 만나의 복ᄒᆡᆼ장을 일코이ᄯᆡ 강졍의
갓던ᄉᆞ연다 강남 홍을 ᄯᅥ나셔 초리거 조ᄉᆞ리여 건ᄂᆞᆯ
노터ᄂᆞᆫᄒᆞᄂᆞᆫ 홍이 본즉ᄉᆞ시 ᄂᆡ아 올시의 편숙ᄒᆡ 불이
ᄀᆞᄅᆞ던ᄉᆞ 연이ᄆᆡ 홍의 조강이 절인ᄒᆞ여 ᄀᆞᆯ웃보지 엿ᄂᆞᆯ
생이아니라 그부탁을 져바리지 말ᄂᆞ 져황각노의 주
혼ᄒᆞ터 물ᄒᆞ리인던ᄉᆞ 연다 올상셰의 다졍이 ᄆᆡᆺ던ᄯᅡ올
일ᄂᆞ 이ᄅᆞᄒᆞ니 져ᄉᆞ 부빅 ᄎᆞ란ᄒᆞ여 ᄋᆞᆯ이 ᄂᆞᆫ 편쥥션 보ᄒᆡ
나 올상셔는 거ᄒᆡ 병공으로 조엿지 우리 갓훈한 ᄇᆡ 편졀
라의 홍ᄒᆡ리오 한님이 ᄯᅮ일 올상셔는 충효 쟝재
ᄒᆞ시 숙빈부은 보지 아올기 ᄒᆡ나 여다 원의 졍문ᄀᆞ

히여라 부인이 츅연왈 반일을 가와 셩흔혀
발 홍의 일에 더우 참후ᄒᆞ도다 최셔왈 이제 픙의발
울 듯건대 심상ᄒᆞᆫ 편지 아니러라 거두지 못ᄒᆞ며 비츄혀
겨 아니 ᄎᆡ오 너는 모로 잇지 말아 그졔 ᄒᆡᆼ으로 죄아뢰
지 발을 나ᄒᆡ여라 ᄀᆞᆯ졍이 어ᄉᆞ지 필ᄂᆞᆫ 션시의 은ᄎᆞ죄경
ᄉᆞ조를 ᄒᆞ우 홍낭을 잇지 못ᄒᆞ여 연욱을 각별 ᄉᆞ랑혀
녀 일을 시도ᄒᆞ오의 혀나지 못ᄒᆞ게 ᄒᆞ더니 일ᄀᆞ은 운샹
셰 히당의 드되와 부인다ᄒᆡ 소죄의 혼ᄉᆞ을 의논ᄒᆞ실
시 상셰왈 신방 장원낭 장구을 보니 고인 거본장이
당셰의 목젹이나 우리가 ᄉᆞᆫ 쳥ᄒᆞᆫ 혐경다 흔ᄌᆞ 졀혼
물 빗지 못ᄒᆡ 깃기로 무혼지 못ᄒᆡ엿더니 이제 ᄃᆞᄒᆞᄂᆞ

이졔ᄃᆞᄅᆞ니낭가일힝이불셰간평ᄉᆞᄒᆞ올다ᄒᆞ니빗
당현귀카을보니여안으로탐지ᄒᆞ여보면조흘가
ᄒᆞ노라부인이ᄃᆡ왈인가의주혼ᄒᆞ는도리며ᄂᆞᆯ을잘
못보니면도조ᄒᆞ쥐졸이부족이언다ᄒᆞ니이졔ᄋᆞ기모
셜파을보니이방ᄒᆞ나비록셩품이온냥ᄒᆞ여나면
쳐져거질박ᄒᆞ니낭가의일연셩ᄒᆞ물기다뢰셜카
울가로뢰보니여거쳑을탐지ᄒᆞ순이다잇셔연울이
종반거쳐상셰부모의문명을뢰ᄂᆞᆫ이ᄃᆞᆺᄃᆞᆫ심즁의
러이이ᄂᆡ져싱각ᄒᆞ되낭군셰만일소뢰와버럴이
된즉홍낭의연훈이반다시질길거라이뢰ᄒᆞᆫ살을
소쳐거ᄃᆞᄒᆞ여ᄃᆞ즉의션심을빗ᄒᆡ지아니리오다만그
발셜ᄒᆞ기여렴조다ᄒᆞᆫᄃᆡ일계을싱각ᄒᆞᆯ라안

의ᄒᆞ져졈소의가ᄎᆞᆨ을도ᄅᆡ며졈즛ᄅᆞᆷ쇽의셰
닌궁궁의ᄒᆞᆫ낭의게당셔헌글을상가의나와지뇌
나가거ᄂᆞᆯ소뢰졉어보ᄃᆡ니여겨욱을뵐ᄂᆡ부ᄂᆞᆫ왈
이조희네희홍의쇠언려진거시어리헌손의조욱이
디곳ᄂᆞᆯ나귀왈이는ᄃᆞ곳의게봇된바숙췩이기라
ᄲᅢ잇져봇글녀ᄅᆞᆷ숙의두엇더니희생훤ᄒᆞ니다소뢰
졍쇡왈계닐노ᄃᆡ부지쇠ᄅᆞᆫ숙이ᄂᆡ엉ᄃᆡ여어졔운희
혀봄이셔ᄎᆞᆫ잇던비아니ᄅᆞᆫ다욱이순쾌휘ᄂᆡᄂᆞᆫ몰을
져ᄇᆡ뎌왈이쾌소쾌진졍으로옥ᄅᆞ서쳔비잇져〻
심오ᄅᆞᆷ홍국을은휘ᄒᆞ리잇ᄂᆞᆫ곳홍낭의지강이
ᄅᆞ병헌봄소쾌아ᄅᆞ시ᄂᆞᆫ비라ᄎᆞᆫ의게허신ᄒᆞᆯ손지

엄쳐셩냥평누의비상일홍이완결이각ᄒᆡ여시더니
조화용아지시러여여남이공ᄌᆞ을알가평ᄂᆞ리화의셔
한번굴거조한번본ᄃᆞ박면기약을금셔각긔뤼펴더
니그물이되희뒤여ᄂᆞ셔일장줄봉이되니통인의왼
여희믄일으지발ᄂᆞ쳥비의바라믄ᄂᆞ인의다르지아니다
가빠라이훈어저니즈ᄂᆞ현마음이한장셔간을신격을
삼아냥공ᄌᆞ와노죽지의을일외ᄂᆞ죽의뭇다현평
셩을공ᄌᆞ의게라ᄒᆡ여ᄂᆞ죽의영벽으로ᄉᆞ셩간니심
득지이니물알게헐가죽견이로초이다연가의는
물이옷이ᄇᆞ즐쳑시니초제초중심을피ᄃᆞ듯이여져
련왈우시죽으기시삐로다옥이눈물을거ᄃᆞᄀᆞᄃᆞ

혹다의쇄 잠간 웃거늘 소제 이 소왈 우ᄃᆞ 늣으ᄃᆞ
너이모의 알거니와 웃ᄌᆞ는 변ᄃᆞ는 목삼즉 네언논 욕이ᄅᆞ리
숏여당리 붓친대 소제 벽소왈 지금 편이 ᄀᆡ심ᄒᆞ노
너아 구발이 든거 옷은 변ᄃᆞ울 이곤 알ᄅᆞ귀를 나 은퇴긔
발너 욕이다 시 소제의 거셕을 살펴며 웃쇄왈 쳡이
안가 발최ᄉᆡᆼ당 광 받거 ᄒᆞᆺ더니 노애 복인다 소제의
훈순을의 논회 시ᄂᆞᆫ 말솜을 듸기ᄂᆞᆫ 것슨 오니 며남ᄋᆡᆫ 공
제그슨이 강리의ᄃᆞ 등즁 슨 한님 ᄒᆞᆨ순 줄 노애의 죄ᄋᆡ 이닌
한님거 평훈 고러ᄒᆞ시며 셜ᄅᆞ귀을 죵뫼 편다ᄒᆞ셔
더이다 소제 솟디회며 욕ᄒᆞᆫ이 별ᄒᆞ며 앗지러 왈 오빙
이 받거셔 네당 발을 벗ᄂᆞᆫ기을 잘회 ᄂᆞᆫ다 욕이 ᄯᅢ왈

쳔비ᄂᆞᆺ기ᄂᆞᆫ 슈의 깃분 일이 잇기로 소졔 아모 말이라
도 은휘치 말아라 ᄒᆞ교ᄒᆞ라 ᄒᆞ시ᄃᆞ 소혹ᄒᆞ시니라 시ᄃᆞ 혈
비엽도 소에 ᄋᆞ 소쥐 엿ᄌᆞ 깃분 ᄯᆞᆺ을 부어시ᄂᆞ 우이촉ᄒᆞ
의 죠화 인ᄒᆞ여 ᄃᆞ리 슈ᄌᆞ 당지ᄋᆞᆫ 줄니 소졔 아시ᄋᆞᆫ 줄 왈
네 ᄉᆞᆨ깃거 아닐 거시니 심즁의 깃분 말을 은휘치 말
나 욕이 소졔의 무로믈 당ᄒᆞ여 ᄂᆞᆺ출 붉히며 왈 금일
낭한님은 셕일 낭군은 오셕일 낭군은 ᄂᆞᄃᆞ 졔 강남홍
의 지러 졍이 거지 인이라 죽인이 일즉 공근을 ᄲᆞ나흐야 의
소졔의 평슈ᄒᆞ시일가 화 쳔거ᄒᆞ게 ᄀᆞ히 점두ᄒᆞ라
호시블 쳔비 둘 엇더니 어쥐 만얼 혹ᄂᆞᆫ 일ᄉᆞ변 쳔비인
연이 쥐어ᄒᆞ아 울바울 손ᄃᆞ로 이깃리 웃스 비울 홍낭의
ᄃᆞ 심혈 쳥을 일ᄃᆞ 엇지 부ᄅᆞᆯ 실쳐이니

터가연파의상연축구텨나소졔무연이발
이영스나심녀의황연대가텨여등낭의졍셩다운
즐다령허등옷거바야흐로환득허ᄂᆞᆫ축연ᄀᆞ실줄여
더욱이지못허더라

낭학간빙월심연편 벽쳔션축아란비가

차사올❋복의허낭가의잉쳥헌소식을듯ᄂᆞᆫ셜과
울보니텨셜차을갈으텨왈미양벽의가는텨며
작의숙단을부텨고의화을아타을출나셜취텨
왈노신이나히칠십이라텬비낭의순채을모로리오
가연옥이니다라소왈라텨어지는텨을보면아나나
가셜제당왈셰상ᄉᆞ람이귀의반가운말은으로드
근리로은말은고으로뒤당허나여득온순을바라게셔

사람의 눈다고울 한번 본즉 그의 ᄒᆡᆼ을 귀신ᄀᆞᆺ치 감
각해되 좌와 일제 대초핸 북인왈 시수 뮈쿼 빨이 슉다
둥어 일이 그릇 귀나니 낭은 낭북의 가나내 집이 잇는
해빨ᄃᆞ다 난 그계색만 탐지해ᄃᆞ으파 쉴쿼ᄃᆞ디 조아재
왈어대 잇슴을 물은즉 무어서 파해되 잇가 연욱어
니다 되왈 만일 대당이 어퓌은 빨이 잇거든 귀백운단
ᄒᆞᆫ다 해니 북언왈 너무 변모퍽여 취줄이 낼가 줄나아
이험 일은 낙가 변쉬 잇시 안해나니 파쉴 취매리 ᄒᆞᆫ
둘매왈 발은 빨 퇴여 커쥐지 안나니 헌셩을 엇디
해지오 현매 멍ᄀᆞ어 나가다가 다서 줄쾌 쉬매 무얼뫼
ᄉᆞ을 블명에 알ᄅᆞ 헐지어 이혼인이 수주을의 ᄒᆡᆼ해여가
라 해시나어 잇가 해니 북인은 어해 엽쉬 해츤ᄃᆞ 답

지아니ᄒᆞᄃᆞ라 죵이 귀ᄒᆞ여 나 연옥이 ᄂᆡ다라 웃ᄃᆞ
왈 양부의ᄂᆞᆫ 규슈염ᄒᆞ여 거ᄂᆞᆫ 낭자영ᄌᆞ네노랑을 ᄉᆡᆼ
각ᄒᆞ여 보ᄂᆞᆫ ᄎᆞ쉬 설치 비ᄃᆞᆫ ᄎᆞ 알ᄃᆞᆫ 줄 ᄒᆞ여 나가며 왈 우
리 ᄎᆞᄒᆡ의 가권ᄃᆞ로 특별이 날을 보게시미 ᄎᆞ다 ᄒᆡᄃᆞ
우으며 나가 너부인에ᄃᆞ 너므ᄃᆞ지 식ᄒᆞ여 불념니 ᄒᆞ여 연
옥을 도라보아 왈 ᄂᆡ 설화올 ᄒᆞ라 가실 ᄉᆞᆨᄒᆡ미 잇거
ᄃᆞᆫ 팔죽 설ᄒᆞ과 옥이 ᄉᆞᆼ병ᄒᆞᄃᆞ가 너라 이ᄒᆡ 연옥이 낭
복일 ᄒᆡᆫ이 경ᄃᆞ의 이로 불못ᄃᆞ 한번 나아가 흥일 ᄃᆞᄒᆡ
ᄒᆡ던지라 설화올 ᄒᆡ라 낭부의 나아가니 한님은의 당
의 잇ᄃᆞ 옥이 바로 안으로 드러가 뮈 부인이 불셔ᄂᆞᆫ 낭은
엇더ᄒᆞᆫ ᄉᆞ람이며 부샹연ᄃᆞ로 왓나ᄂᆞᆫ 설화ᄃᆡ 왈 ᄂᆞᆫ 신은
울 상셔ᄃᆡᆨ의 잇ᄂᆞᆫ ᄉᆞ람이ᄋᆞᆸ더니 ᄌᆞ리나 ᄒᆞᄂᆞᆫ ᄇᆡᄒᆡᄃᆞᆫ ᄎᆞ이

다옥이 겻희 셧다가 념을 당희 너일을 을부초되는 곳되
라 취일ᄅᆞᆯ 쥴을 부의 잇지 아녀 그라ᄒᆞ여 엿노라 옥이 우
음을 갑지 못ᄒᆞ여 ᄎᆞᆷ 염을 가되 ᄃᆞ도라셔 ᄂᆞᆯ 부인이
웃ᄃᆞ 일ᄅᆞᆯ 쉬아희는 누구노 옥이 셜회의 발ᄒᆡ기 편되일을
쇼비는 노랑의 ᄒᆞᆫ일이 쥴 쇼이다 셜ᄒᆡ ᄡᅥᆨ지 편일을 우리 ᄉᆞᆯ
뫼 병상 거줏말나 ᄒᆞ여시되 쳐베ᄅᆞᆫ 출 곳치 그 못ᄒᆞᆫ낭
도다 옥이 의빈 빈 부당ᄒᆞ여 나 부인이 우볼 일을 노랑이 ᄀᆡ라
자ᄒᆡ 나녀뎍의 쳐 보게 시도 셜쳐렴을 낭주의 되일
시 슉ᄆᆡ 자ᄂᆞᆫ 말이 ᄉᆞ뎌 도나노 신은 실상이아 ᄅᆞᆫ ᄆᆞᆯ 뱐
희옹ᄋᆡ지 ᄀᆞᆷ병 부상ᄒᆞ운 ᄀᆞᄉᆡ 일리 ᄎᆞᆫ교 이셔 년당
이십될ᄒᆡ라 기부의 도ᄋᆡᆫ을 빗ᄃᆞ 쳐ᄒᆡᄂᆞᆫ 노션

울ᄇᆞ내시며 복흥의 잇노라 ᄡᆞᆯ나되시나 ᄂᆞ신은
다시성가걸되 혼인은 일ᄂᆞᆯ되ᄉᆞ라 그되ᄂᆞᆫ 아니되 ᄆᆡ울
복의잇ᄂᆞᆫ 일이잇기의 달니지이얼지라 을획히여 복
상욱이ᄒᆡ여 잇셔지가노신은 곳을초쳐의 욱모셜가
오려이희ᄂᆞᆫ 초져와 베ᄅᆞᆫ 연욱이 나노신이 엉니리 못
더라 ᄒᆞᆯᄉᆞ 욱을 ᄒᆞ라 보기여 뢰 ᄒᆞᆯ을 감ᄒᆞᄂᆞᆫ 져ᄎᆡ이나
지금노신의 ᄡᆞᆯ은 솜의 심쳐이 ᄒᆞ로 초ᄭᅴ 우리 초쳐ᄂᆞᆫ 동쳐
일연이라 문장니ᄒᆞᆫ이 ᄒᆞᆫ 숫도미 흡ᄒᆞᆫ 데업ᄂᆞᆫ 동다ᄒᆞ
키고 ᄉᆞᆨ복비ᄒᆡ여 네졀이 ᄒᆞᆫ 힘드엉ᄉᆞ온 욱되ᄉᆞ져
ᄂᆞᆫ며 홍ᄀᆞᆫ든 온다 (안)빙랑의 졀구 트ᄂᆞᆫ 힘이 복ᄌᆞ올
ᄅᆞ 황발 복연의 흑변이 아니온되 일셩ᄒᆞᆫ 후이ᄂᆞᆫ 일
ᄒᆞᆫ가지ᄃᆞᆯ 내거든 노신을 발셜ᄂᆞᆫ지 욱의 보내 초쳐 나ᄂᆞᆫ

복과이막불뒤초혀ᄃᆞᆫ복인이그ᄯᆞᆯ이홀작ᄒᆡ교외
뫼질박혀여ᄂᆞ식이엄셔보이니이왕그현쵹ᄒᆡ
물드ᄃᆞᆺ난지라잠초왈노망낭은진짓쵹단잇슨
비라로다다ᄡᆞᆫ기집이한ᄂᆡᄒᆡ그을상셔ᄂᆞᆫ숑그ᄃᆡ
상이라일리초ᄂᆞᆫ을의ᄒᆞᆫ그졍ᄒᆡ시되요셜귀ᄒᆡ
초귀올우리북인은귀부의셔ᄒᆡᄒᆞᆫ지아니셜가
의려ᄒᆡ서니그려치아니시변노신을현연빌라ᄒᆡ
여보내시되가ᄒᆡ니희셕이가득ᄒᆡ니낭부의셔소
들옷더라복인베즉로셜가을뒤졉ᄒᆡ여왈도라
가셩혼계되변니다시삼진출노상즉더라셜ᄒᆡ
되ᄒᆡ낙ᄒᆞ혀여하직ᄃᆞ졍ᄒᆡ더니한님이베당의ᄃᆞ되오
라가연욕을보ᄃᆞ온연ᄃᆞ을무로니욕이붓그

그러우ᄂᆞ부쳐현뎨부인이웃고ᄉᆞ연을말ᄒᆞ니
한님은ᄆᆡ손ᄒᆡᄅᆞ셜ᄀᆞᆫ는연옥ᄒᆞ다ᄒᆞ더가아니목ᄒᆞ여얼
ᄒᆡ소스뎐상궁이신낭되실상궁에셔난옥이ᄃᆞ리곳고
셜ᄒᆡ여죽은ᄂᆞᆫ을세스ᄇᆡ이우여바라보ᄂᆡ희셕이
ᄇᆡᆫᄇᆡᆫᄒᆡ여도라와부인게ᄃᆞᄒᆞ리범상현예ᄀᆞ는발ᄯᅢ
ᄒᆡ을ᄃᆞᆯ니ᄃᆞ졸ᄒᆡᆯ을ᄒᆡᄇᆡᄒᆡ며몰렴이ᄃᆞᆯ도록ᄃᆞᆫ니나
ᄋᆞᆯ이졸셩치못ᄒᆡ거ᄂᆞᆯ노션은한번입을열ᄇᆡ디ᄋᆡ
ᄂᆡ외ᄒᆡ니슉당을븐ᄉᆞ쳐ᄒᆡ거ᄀᆡᆫ니ᄂᆞᆯ연옥이ᄂᆞ고가
쳐ᄒᆡ던지동을줄인다시ᄇᆞᆯᄒᆡ니ᄒᆡᆯ회ᄂᆡᄉᆞ왈우
ᄃᆡᄉᆞ쳐의ᄇᆡᆨ년가렴을졍ᄒᆡᄇᆡ여거간ᄉᆞ현거ᄌᆞᆺᄆᆞᆯ
울ᄒᆡᄃᆡ요울ᄀᆞᆫ이ᄃᆞᆺᄂᆞ그적연을거두이ᄯᅥ기ᄃᆞᆫ이ᄋᆡᆺ

셰ᄉᆞ졔 낫 물안 셰을 입히여도ᄃᆡ 오니 셜을 취게 다타 ᄉᆞ
졔의 손을 잡아 좌의 안치ᄃᆞ 옷ᄉᆞ여 왈 일이 술셩ᄒᆞᄃᆡ
분ᄋᆞ리 쇼졔 북셩ᄉᆞ리 온연ᄃᆞ려 헤리ᄂᆞᆫ 쇼졔 ᄃᆞ연ᄃᆞ
울놀나 손을 ᄲᅡ이ᄇᆡ 왈 어ᄇᆡᄂᆞᆫ 죗거리지 ᄆᆞᆯ나 셜 취
위 쇼왈 곰일은 비록 이리 주나 린일을 그ᄅᆞᆫ을 ᄇᆞ 졔 빅ᄂᆞᆫ
휘로 혈졔 바야ᄒᆞ로 비졍미 현ᄋᆞᆫ 어이셔 불일ᄂᆞ니라
쇼졔 바야ᄒᆞ로 셕다ᄉᆞ 슉여 ᄒᆡ여다가 거이ᄋᆞᆼ 희다 시 ᄉᆞ져
의 손을 잡고 왈 곰일 낭ᄌᆞᆫ 님을 낭ᄌᆞ이 가을 보ᄅᆞᆯ 졍
라ᄉᆞ 얼ᄌᆞ리 ᄂᆞ을여 보바ᄅᆞᆫ 듯 반다시 효셕 뎔 거시여
인 일희 쳐ᄌᆞ이 ᄆᆞᆺ여 보이변 졍ᄒᆞᆺ 쇼졔 여지 ᄒᆡ취 나ᄂᆞᆫ 쇼
졔ᄃᆡ 욕볼 그ᄃᆡ 손을 ᄲᅢᆷ희ᄂᆞᆫ 보친ᄃᆡ ᄒᆞ로 도로 어

칸뒤셜쥐옷을ᄯᅡ라가녀소ᄅᆡ의얼굴을듸려다
보너든을녀구만ᄒᆡ왈낭부의가쉬부인을보니가
강숄후ᄒᆡᄂᆞᆫ유츈현연셔근근ᄒᆡ여ᄎᆡ갈오온부인
은이너될가을낭이이르유ᄒᆡ소ᄅᆡ의부이너가장슈
상현버는한남이연옥을가징유의ᄒᆡ여보니소ᄅᆡ
는타일다ᄒᆡ가리말으소셔ᄒᆡ더라이일을군이난부
의갈셔난부의쇠셜과을본비셜과의마을살ᄒᆡ
녀일ᄅᆡ우은너부연왈그뷔과는길셜ᄒᆡ인물이ᄌᆡ
너의시속인의이ᄌᆡ못ᄒᆡ리니그을보아울부가금을
알지니홀후ᄒᆡ물경작ᄒᆡ불알나르다ᄒᆡ더라빙
선의운공이일으나번직네길과령의궁궁왈셜

셩의놉흔일홈을앙모ᄒᆞ엿더니온ᄎᆔ나걸인의뎡네
의잠기여겸가옥ᄉᆞ의연분이엄셔ᄯᅢ죄야상봉ᄒᆞ
ᄯᅢ여지늣거아니되온원의흠신당왈ᄯᅢ셩을도야
의한가현품이라ᄒᆞᆼ젹이ᄯᅢ루라벗ᄒᆞ여여년ᄒᆞᆼ시
혈가ᄒᆞ여뎐니ᄯᅢ거ᄒᆞᆫ즈식이혈은이ᄯᅡᆼ쥭ᄒᆞ손은
ᄒᆞᆼ이아비리ᄯᅵᆺ쥐시니쥭은울분당ᄒᆞ울거ᄯᅡᆨ도엄
ᄃᆞ신질이자로발ᄒᆞ여직목을손ᄲᅧᆫᄒᆞ나면쳘ᄒᆞᆫ즈
식이ᄯᅡᆼ셩의게쥭은조ᄒᆞᆫ나리못ᄒᆞ쥭ᄒᆞᆫ즈최뎡외
갓가이잇시니총돌이온ᄯᅢ거ᄒᆞᆫ즈식이로향의참ᄂᆡ
돌니주ᄋᆞ우ᄒᆞᄒᆞᄯᅢ축ᄎᆞ간쳘이되ᄲᅡ라권ᄒᆞ명ᄒᆞᆼ을
송ᄉᆞ고ᄒᆞᆫᄒᆞ손ᄒᆞ물이엄게ᄃᆞ여쥭고ᄉᆡ울

상셰 초왈 영웅은 국가의 보필동냥이라
츅상의 쳔이 샹으로 크게 쓰ㄷ죄하시니 이는 조뎡의
연횡이 녀눌 우쳬의 농변하므로 일주을 뵈 순양할
여든 가파회를 비엿시리오 츅리이 상과하끼 원의는
울궁의 홍후리 롱을 궁평하ㄷ 울궁은 원외의 쳥
그지졀을 탄복하여 조변여ᄌ허더니 울상셰 종을
분일을 녕낭의 난귀장 션하엿시니 실가리라 이일
시밧 불지라 우최의 계일네 잇셔 비룩휴번니룩
의데졀이 업스나 거의 건를을 소임은 당할지라
니북의 지독한ᄃ인는 헌우의 달니 피안닌지 퇴산
계초봉황 과쉭하ㄷ쇄하난니 혈하여 탕다바리

지아니시라원외염임은일을한본는견을오지부욕
와ᄌᆞ나지주ᄒᆞ시니만셩의라본이라다만쾌나은욱
취재변이영이나임의거련ᄒᆞ여슉옹이일시박분
재라슉ᄒᆡ확일은셩네ᄒᆞ슌이야궁이청슌ᄒᆞᆫ듯욱
의셔퇴일ᄒᆞ니불라일을슐이가ᄒᆞ엿더라빈ᄀᆡ래회
ᄒᆞ여ᄀᆞ산욱슉의아담ᄒᆞᆫ담논라조타층벽의발
ᄀᆞᆫ평회로쇠르홍금이상연ᄒᆞ여비ᄂᆞᆫ이담초의바
움이쇠조열나여셰날ᄯᆞᆺ지변더과의보ᄒᆡ퇴황
각ᄂᆞ의비렴ᄒᆞ셔불ᄀᆞᄒᆞ니울샹셔는쥬시이ᄒᆞ야
회ᄉᆞ울혹의모리물일갓ᄃᆞ트타가ᄂᆞᆫ향각ᄂᆞ울비
져한원녜철의슉어당논ᄒᆞ다가각리일을노

뵈방낭의게 훈ᄌᆞ을 말ᄒᆞ여 즐부의 고치 못ᄒᆞ며
여존경ᄒᆞ며 나이 졔 ᄒᆞᆫᄉᆡᆼ이 경졔의 이ᄅᆞ시니 어지 만흔
아니ᄒᆞ여 오ᄂᆞ 뵉비 루부키 최 못ᄒᆞ나 효ᄒᆞᆫ 빈ᄒᆞᆫ 커 아
니ᄒᆞ고 또ᄒᆞᆫ 나아의 위인이 비록 비 훈거시 염스나 옹
모범ᄒᆞᆯ이 죽ᄒᆞ여 물변ᄒᆞ여 가위 ᄌᆞ손의 효ᄌᆞ되가
의다의 영을 듯ᄒᆞ나 어ᄂᆞ 셰셩네 ᄀᆞ례ᄒᆞ난 ᄌᆞ왼
의형라의 본대 물의 의비 속ᄒᆞᆫ ᄉᆞ로 셩ᄒᆞᆷ이 츌
직형리 커늘 ᄒᆞᆫ ᄉᆞ의 빈복을 의논ᄒᆞ여서 속ᄒᆞ도와 비
아현언서 십분 불열ᄒᆞᆫ 생이어ᄂᆞ 원상 쇠와니 야
이즘 쇠이 너ᄂᆞᆯ 엇지ᄒᆞ여 훈ᄒᆞ되 오염이ᄒᆞ니 옹ᄉᆞ의 일상
승ᄂᆞ 소ᄀᆞᆷᄒᆞᆫ 비 현가 문의 결혼 그ᄅᆡᄒᆞ여서 나가ᄂᆞᆫ

무지나 쳔식의 혼ᄉᆞ을 임의 변복 시상셔을 ᄀᆞᆫ지ᄂᆡᆫ고
완평혀엿시나 ᄀᆞᆺ흔 옥이 흙으로 불한 혼 나이다 각뇌 그
게 깃거이 ᄋᆞ혀 왈 노복이 임의 영을 다혀 평ᄉᆡᆼ 언나이 잇
쳣ᄉᆡ 어지므로 비슷다 혀시나 노한 님이 평ᄉᆡᆼ의 왈
인가의 결혼은 인륜키 ᄉᆞ라 이왕 가업에 평혀신 반욘
ᄉᆞᄉᆡᆼ이 부쳔의 ᄃᆞ치 못혀므로 ᄃᆞ혀 이 나 상아혀다 ᄒᆞᆯ
술은 의아혀나이다 각뇌 무연 부당이 양ᄂᆞᆫ 이조와 가ᄂᆡ
라에 혀주혀 길일에 다ᄂᆞᆫ로 ᄂᆡ 난부의셔 신낭을 보
네ᄂᆡ 신부을 이바 즐서 신낭의 ᄒᆞᆫ랑이ᄂᆡ 신부의 용모
거질과 옥한 평은 혀 비 현평 출연이 불알게서 요
낭신인이 흑하의 상되혀나 셔로 아던 바 갓

최반가 온듯상경상화허나여빈평러줄여
일호도년손복〻것지아여허나최〻복배들기옹은
져기츙이라. 복인운희츌더비방효여소허〻장이천
셩녀아착호니옹손체호봉준당허〻손츌준허
여화거빈명이라. 븜훈산을일웠시여곤한납여경
귀여〻금슬의백년을낫비니기〻놀복상히기거
허볼미자이여허니쿨거옷이국허뵈고화용의헌신.
허미영슬이올좌시황각녀난부의녀거울당즐여
앙은이젼의도화와생각허나난한냐갓흔뎔쇄의연
져울굿희미즈미본허미침거못허운네옹상쉬의
퇴여여미붓그러온비라사거몬져발연허〻옷즐쉥그리

못허매 므로 훙지 봉이 발호허여 얼지 울ᄉ이 각근지로 곤병
잇다허여 죽일 조희의 불찰헌대 나라의셔 일노
더진이라 허ᄉ 각별에 우허시ᄂ 고로 곤시 조부병
조사여 태의을 보내ᄉ 조호허라 허시나 각기 바야흐로
궐하여 숩ᄉ허여 왈 신이 전ᄭ지 지절을 다허여 죽은
을 강산을 가허였더니 죽을 날이 ᄂ지 어ᄃ거라 삼신
이 현황허와 죽일 조희의 불참허온이 황공대죄ᄒ
올이다 상이 병을 즈십허자 허시며 그 황난헌 연드을
목로 시어 자뇌 박측의 ᄂ물이 흐로 뻐측허귀ᄂ신
은 박족 일체오라 노신의 주ᄀ 소회 울은 라허오라자
신이 최로 십ᄇ의 한 월을 어ᄉ와 소ᄎ ᄎᄉ여유라

다만남미오아늣게야일ᄂᆡ울어더지금나희게삼
오쇄요의가쳐을주희더니신방장원낭칭국에ᄂᆞ문
희와신의졀이얏츔기주춘희며졍녕연ᄂᆡ이엿
삼여ᄂᆡ충ᄃᆞ의아보ᄆᆞᆯ업시병복상쇄울형ᄂᆞᆫ
지ᄂᆡ조염의쳥내희더니희오ᄂᆡᄂᆡᄂᆞᆫ신이ᄇᆡᆫ노희여
쳔평을볼거시업ᄂᆞᆫ연리ᄒᆡ신의ᄯᆞᆯ이비ᄅᆞᆺ희
빅을밧져아여신나닌ᄂᆡ후당이희훈희불ᄃᆞᆺ연ᄂᆞ
을알ᄂᆞᆫ죄못ᄂᆞᆫᄯᆞᆯ이ᄇᆡ의리희여흉불복와다ᄂᆞᆫ죄인
소오ᄂᆡ늣게아여여소당이비지못희디가신의노희ᄂᆞᆫ
울불쳥젹의병지경가에울신의쳐지진실노
박졍희온지다여차ᄂᆞᆫ죠다만숙여본지ᄆᆞᆯᄂᆞᆫ죄희
안내다후희의노흉헌은불이흔들울원ᄉᆞ당지뭇희

나상이위유ᄒᆞ시ᄅᆞ흑시낭원의울병로ᄒᆡ순ᄒᆞ고ᄅᆞᆯ
서뎨황승상은낭로원ᄒᆞᆫ이라짐이내우ᄒᆡᄂᆞᆫ데신
이나이제ᄃᆞ토니그ᄯᆞᆯ여경의아ᄃᆞᆯ다려ᄒᆞᆫ디ᄃᆞ아
시울텽분재내로임의졍ᄒᆞᆫᄒᆡ엿다ᄒᆡ내일이온
당치못ᄒᆞ나시속이이삼쳐주ᄂᆞᆫ져왕ᄅᆞᄒᆡ나졍이
죵뫼ᄒᆡ나여낭긔다시상의ᄒᆡ여결ᄒᆞᆫ제ᄒᆡ라ᄒᆞ시
나원의돌속ᄉᆞ낭이렵어상이더시쟝즉을인견ᄒᆡ
순밧비ᄒᆡᆨ일셩ᄒᆞᆫᄒᆡ라ᄒᆡ시여ᄒᆞᆫ님이황가ᄂᆞ의부
평져ᄎᆡᆨ을십분불열ᄒᆡ여형셔즉왈복ᄂᆞᆫ오ᄅᆞᆫ
의즁ᄒᆡ미잇ᄃᆞ가도의의ᄃᆞ톳닐비라낭기상의되여운의
로상담ᄒᆞᆫ졍어위ᄒᆡ로겁박지못ᄒᆞᆯ비여ᄂᆞᆯ이제
승상황의병이원노ᄒᆞᆼ선으로ᄒᆡ모울ᄃᆞ라

본지안코쥬방아녀의셰ᄉᆞ평으로무란이ᄒᆡᆫ
뎡의번거이더오며노흔헌싱가라비둑헌말숨으
로외텹ᄒᆡ말[illegible]신이그우이리연ᄒᆡ앙낭이복원ᄒᆡ
ᄒᆞ는하고을거둑사왕연의ᄒᆡ물이업게ᄒᆡ소ᄒᆡ
상에그죽연을드로시며발인즉슌의절당ᄒᆡ나그
신진명슌로연세홀적ᄒᆡ니그ᄯᅢ로물시ᄒᆡᆫ즉그ᄯᅦ
거울기로비와진노ᄒᆡ슌외을신진숀년이왼노ᄒᆡ신을
논박ᄒᆡ미여초ᄒᆡ벼슬부의명을불숙ᄒᆡ니그ᄯᅢ
지아년지라낭창쥭으로강죽부의찬비ᄒᆡ라ᄒᆡ시
니왼의부친황군뫼홀ᄒᆡᆫ후싱이황가느을외골
믈사외을김이[illegible]며ᄒᆡ엿서이숭싱은근심지말나술
신이가ᄭᅴ슌은이ᄯᅢ로니라시의낭부여셰박비지ᄒᆡᆫ

한쇠 부인이 아ᄌᆞ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니며 왈
왈 내 너를 어대 유녕봉하의 밧갈아 대셩을 안
한이 보내지 못하고 부지런시 환욕의 굴물 그려ᄒᆞ
다가 이런 일이 나니 강칫ᄀᆞ을 바라ᄃ 몸이 걸쳐여잇
시되 요한 넘이 이 쳥낙 딕히여 위로히 왈 되여 부ᄭᅴ
외온대 숙이 온 손을 잉손을 지라 하ᄃ이 상심ᄒᆞ기 말으
세ᄃ 기체을 보중하소 환기허물 바라소셔 어의 소뢰
림실의 도다와 각별히 섬서 부모의 감지를 부탁ᄒᆞ
여 왈 셩이 사로헤는 조되을 삼가져 본티여 화니 원쳥의
되기 되어 나 홋려 게 되니다 ᄒᆞ는 중 거업ᄃ 다만 부인게 복
락ᄒᆞ니 비ᄅᆞ라 권ᄃ 부인은 신혼 쳥쳥의 감지을 밧ᄃ
려 위로 ᄒᆞ여 백여가는 생의 불효을 더으게 말으나

소회 슈리허물 허여 ᄃ리울 ᄉᆞ기ᄃ 렴은 말이 일
운첩의 본네 사관연이와 로라 울물거 이어녀나되
뵈이스가 한님 알의 병이 그지 안혀나 ᄉ이은 순을 엉
으려나와 네그림려 외로은지 되와 ᄂ심서 로형로 홀이다
언ᄊ의 울상이 컴해시물 ᄃ해나 한님이 외당의 나아
가병평허나 울근 심슈란 알노뵈 동상가리으로은
근지형이 론별ᄃ니 이뎨나 별이른다 눌나이다 남아의
상서파 힝니의 보홀를여 부슨 환정해 불바더ᄂ뫼
한남이 비순 슈병혀ᄃ 부천거하지 할서 뵈셔 울강
쿼는 ᄃ롬이 미숭허여 롱쥐아 로팁ᄂ지 못허ᄃ 네아
직보 소허여 혈거ᄊ 셜해나 스순 로로 심해여 울져지
회울 ᄃ유지ᄆ나 ᄂ아미주ᄃ 헌염ᄃ울 생각해라 한남

이비이 ᄉᆞᆨ병ᄒᆞᄂᆞᆫ 기간셩ᄒᆡ인강ᄒᆞ야셔 몰ᄂᆞᆫ해ᄂᆞᆫ 머즁
의올나ᄂᆞᆫ디 창두와 일디 즁ᄃᆞ 끝무ᄉᆞ 둑달ᄒᆡ나 고을
지환이 인가 글짐을 향ᄒᆞ야 췌ᄒᆞᆯ 평ᄒᆞ여 ᄌᆡ렴이 한ᄎᆞᆨᄒᆡ
나소양ᄒᆞᄂᆞᆫ ᄉᆞᆨ간 ᄒᆞᆯ 실외 거 ᄎᆡᄒᆞ여 몸을 나거 안여
ᄂᆞᆫ 재계인ᄒᆞᄂᆞᆫ고로 용이 방홍의 잇셔 시셔ᄒᆞᆯ 소일ᄒᆞ여
내 졀지ᄒᆞᆯ을 낫더니 랑음이 조ᄒᆞᆯ 듯이 재여로ᄋᆞᆷ이 젼
여ᄂᆞᆫ ᄎᆞ혹을 당ᄒᆞ니 욕누ᄂᆞᆫ 졍냥ᄒᆞᄂᆞᆫ 즁ᄒᆞᆼ은 ᄂᆞᆫ ᄌᆞᆯ 부
러ᄒᆞᆫ 니외이 젼ᄒᆞᆫ즉 심셔 어ᄃᆡ 허리을 한 냠이 심ᄒᆡ을ᄂᆞᆫ
ᄅᆞᆯ ᄂᆞᆫ 즁도의 신려 불평ᄒᆞ여 스ᄉᆞ로 념내ᄒᆞ여 ᄉᆡᆼ각ᄒᆞᆯ싀
내 ᄎᆡᆯ ᄎᆡᆨ쟝 북ᄒᆞᆯ 셩ᄒᆞᆷ이 내보면 ᄒᆡᆼᄒᆞ여 죄냥이 ᄌᆞ옵ᄂᆡ
키안나 ᄂᆞᆫ ᄂᆞᆫ 쵝더이 ᄎᆞᆯ이요 광해 분상셔 ᄒᆞᆯ 내 부 ᄎᆞᆷ
부ᄒᆞ여 병이 안 변이 엇지 불ᄒᆞᆯ도 블ᄎᆞᆼ이 안니되오

이외숙인을불너물왈이는쳐와주경렬는지
잇는냐숙인왈이양회셤이강이잇는강상의경쳐
잇셔병리졀승허니이다한님이듯는을다라는셤
양강을차자강어졍상의졍상의졍쳐잇셔비록
졍내치못허나당황허여강즁물쇄이가허진
누을이출너라한님이경리을존당허여며얼와쳐쵸
결허여이방촘월셕을완상는쳑셕반을과허허구
동을을다러는졀은의을나완상해는셔연주노라는기
을실출현이쳐량허는시상여롱은쳥젼별이쳐졈
헌뒤편낭에허랑소와두견의쵸허러회을돕는
겨라한님이쵸쳥허이기지못허여얼는숙시을저
어읍흔벽쇼화숀쳔지허을네기지못는러는왈이앏

회셔로난주가잇셔술맛시쳥산회다하더이다한남
이웃은소오파하여술배울마시던욱을불나하더
나홀연일길쳥총의은이돌내는소리잇셔듣나
는소래는쇠키여너커놀좋은울드리보아죄소래불
알아듯더는다동계위앞을거믄소리가하나이다한
남이소월을안니라더귀현은조ᄒᆞ다호현은젼ᄂᆞ어라하
너반다시비파셩이로다셕의벽나쳔이던곳의젹가
로여비좌현을거여서이제조그여총이잇도다하며
몸을이허동곤을다리고소리울조쳐이우에가한곳의
이르나숙홀숙의숙간초당이잇셔죽비울닷앗거
눌동곤으로문을두다리니빨리소환이나와뒤당하거
놀한남월나는셔나가다가비파셩을드른졔외시

심상ᄒᆞᆫ연물이아니물븐괴아니ᄡᆞᆯ너라낭인
이혀ᄌᆞ발이업더니ᄒᆞᆫ님이발을ᄒᆡ왈버시가므
의셔죽신의비파청을드ᄌᆞ며ᄲᆞ상ᄒᆞᆫ숙연이ᄒᆞ
나기ᄌᆞ녜의울볼ㄷ허ᄃᆞ왓시니라시ᄒᆞᆫ죽ᄌᆞ울안기
지발ᄂᆞ니인이손앤것아니고비파울나호며유숙ᄌᆞ
죽현울글나현묵ᄌᆞ을안외니기청이되일혀로
허여부ᄒᆞᆫᄒᆞᆫ심세인ᄂᆞᆫ재라ᄒᆞᆫ님이ᄃᆞᆫ외울볼허며
곡곡이꼿치ᄒᆞᆨ롱의석러지ᄃᆞ옥이견도의붓쳐시
나이ᄌᆞᆯ용ᄒᆞᄂᆞᆫ의ᄌᆞᆯ신죽이아나니인이시ᄌᆞ혀ᄂᆞᆫ
죽현울다시골나일국울안외니게청이길광강
리혀며물외ㄷ상현ᄉᆞᆯ지인거ᄂᆞᆯᄒᆞᆫ님왈니라라

치죡이여쳥산이아니허ᄃ옥슈는잉ᄃ헌데지거상조을
여일광일챠허니이난즁ᄃ거의아잉쥬이조라그ᄂ얀
이비파을빌치ᄃ우연탄왈쳡이비룩벼아의거본
괴허엄스나비양즁ᄃ거을만나지못허불ᄀ한허엿더
나즁아의상ᄀ을헝쇄상봉헤본거이현일이라엿
저간담을토허여츙쳥을의논겨아니러온휠온본
터나잉슈광으로쳥은가서오일훔은벽쳥현이나셩
거슉변의난츙의부모을일코로바헌증쥑이평ᄉ
의갈탁허여불혱이허병을에여안이빈러이열을
허니슉웅이러조을생아니라나양쇄기안셕울서
괴허여ᄂ단현신세직헌바ᄉ조을보젼치못헐괴과
간신이몸을쇄허이곳의일으니본의ᄂ즁ᄌ

울감ᄒᆞᄂᆞᆫ승내ᄒᆞᄂᆞᆫ울화라안다라그쥐ᄒᆡ이ᄒᆞ니
쳐ᄅᆞᆯ소ᄉᆞᆷ이ᄉᆞᆫ향을ᄉᆞ설ᄒᆡᄂᆞᆫ즁생의갈이강ᄒᆡ
울감ᄒᆞ지못ᄒᆡ여야시본북경기봉책여드니
실상질려ᄒᆡᄂᆞᆫ죄ᄒᆡ베아니오이곳인물이엽ᄂᆞᆫ즁숙
에ᄂᆞᆫ이ᄒᆡ여가ᄂᆞᆫ이상ᄂᆞᆫ질라질ᄂᆞᆫ히ᄂᆞᆫ기경아이육이지
생[illegible]나이ᄂᆞᆫ쳡의비소원이라이제상공은무삽연ᄂᆞᆫ
로이쇼회책거ᄒᆡ시나잇ᄂᆞᆫ한남이쳥라여디옹탄서
ᄒᆡᄃᆞ자각쳑과ᄒᆡᆫᄉᆞᆫ연라평원심회을대강ᄉᆞ라ᄒᆞ니
ᄇᆡᆨ셩션이엄한회이지강탄ᄒᆡ고ᄉᆞᆯ을난ᄉᆞᆯ이반ᄃᆞᆨ
ᄒᆡ비한남이조왈나ᄂᆞᆫ빅면쳔셩이타비룩향구물ᄒᆡ
식을년ᄂᆞᆫ네보지못ᄒᆡᄯᅥᆺ시나일ᄂᆞᆫ즉ᄂᆞᆫ도니왕ᄂᆞᆫ이평우
의ᄯᅡᆯᄂᆞᆫᄒᆡᆸ과ᄂᆞᆫ즁대잇ᄉᆡ놉혼젼ᄂᆞᆫ리와리견ᄂᆞᆫ천평심

가진디ᄯᆞᆯ화허니아지못게ᄒᆡ라곰ᄇᆡ쳥추의낭가순ᄅᆡ
벗쳐나뎌낫ᄂᆞᆫᄡᆡᆫ낭이측연디왈쳥가순즁ᄂᆞᆫ가위
지쳐두쟝이와쥭허ᄆᆞᆯ허리이ᄂᆞᆫ근일은쳥추의일인
이잇ᄉᆡ가목ᄌᆞᆫ석이쳔하의독보헐ᄲᅮᆫ이아니라지로몹
장이ᄂᆞᆫ일을잉두허다ᄒᆞ나쟝이보지ᄂᆞᆫ못허엿시나그ᄌᆡ조
을허심ᄒᆡ여졍의쥭즐울의지나려이ᄂᆞᆫ일ᄂᆞ이현ᄆᆡᆯ
이엿쉬그으을ᄌᆞᆫ소니령박으로강심의여ᄎᆡ졀ᄒᆡ올
쥬허지나어허엿더ᄂᆞᆫ나그소형을모로나이여한ᄂᆞᆷ이ᄂᆞᆺ
ᄂᆞ안석이쳠명ᄒᆡ여은왈그녀ᄌᆞᆫ의일흠이무여신당
이뒤왈향쥭제일방쳥ᄂᆞ의여ᄉᆞᆺ즁기ᄂᆡ강남홍이라
허니이다한님이게지ᄃᆞᆫ시ᄂᆞᆫ홍권허물이거지못인ᄒᆡᆨ되
허지몰헛ᄯᆡᆺ되못허여왈꼿다온곳이쉬리울

안나ᄃᆞ병ᄎᆔ바다의ᄲᅡ젓시ᄆᆡ우웃여한이ᄆᆡ홍즁의
뫼ᄎᆡᆺ더니이제어우심여살난ᄃᆞ다셜낭이약연월상
군이홍울친ᄒᆡ시ᄃᆞ홍이다연죽ᄃᆞᄉᆞ이다한님이
홍을ᄉᆞ디여박닌을언나ᄒᆡ던ᄉᆞ연을일ᄃᆞ이발ᄉᆞ
ᄇᆡ누쉬ᄒᆞᄃᆞ불금치못ᄒᆡ니셜낭월홍갓ᄒᆞᆫ졀ᄐᆡ
재리로여ᄎᆞ약ᄒᆡ되믄옷ᄒᆡ지못ᄒᆞᆫ비라이제상공이
오ᄅᆡ불망ᄒᆡ심을ᄇᆡ오니홍낭이죽어도죽지아니
ᄒᆞᆷ이로ᄉᆞ이다한님월네홍을심상ᄒᆞᆫ창기로친ᄒᆡ
ᄆᆡ이아니ᄒᆡ니이제낭을ᄇᆞ나뒤연여동리홍낭다셜(분)방
불ᄒᆞᆫ지라일변로청ᄒᆡ나마ᄀᆞ온ᄆᆞ음이홍낭을ᄃᆡ
ᄒᆞᆷ갓도ᄃᆡ안ᄒᆡ여다시진을로ᄒᆡᄒᆞᆫ권ᄒᆡ여죽ᄀᆡ이
홍비죽어죽ᄒᆡ니되음이라ᄃᆞ홍누가인을시상ᄒᆔᄒᆞᆫ뫼

홍랑이 구름모여듯 뫼흘 ᄂᆞ금을 담는 해ᄇᆡᆨ 본니 울말
상하며 연서ᄃᆞ하비 홍빈이 절인하여 고ᄂᆞ니 이ᄂᆞᆫᄃᆞ
물한 험거리 한님 뵐낭이 엄의음 줄ᄃᆡ슈ᄃᆞᆼ이 잇
시나다 ᄅᆞᆷ 구조을 시험하라 셜낭이 초일 심셩 슉
아은 곳리며 줄져 ᄃᆞᆯ으 실비니어라 형의게 한풍
취잇ᄉᆞ 온ᄃᆡ 병일 ᄃᆞᆯ은 초책하나 이북 ᄉᆞᆫ숙련ᄋᆞ
오졍 ᄇᆡᆨ셩 취옥책 십년 쳥우뎡 홍졉
시의 ᄇᆡᆨ년쳔이 낭한님을 뫼하여 일을 쳠의게 한디
옥쾌 잇시나 예젹 황졔 덕원시 티슈의 귀을 배여 봉
황셩을 응하여 옹ᄯᅳᆯ을 지을셔 장ᄉᆞᆼ셩을 향하여
실이 ᄯᅡᆯ을 번ᄃᆞ니 응셩은 궁을 이되ᄂᆞᆫ 셩은 니기되
며은 줄을 보ᄀᆞᆯ 변쳔신이 감동하ᄂᆞᆫ 셩으울 불

별인심이호탕ᄒᆞᆫ나니이제쳥의게이시는옥제
는운ᄂᆞᆯ의향ᄒᆞ여셰상의능히부는져인는쳥이
어려워신인을만나조박을비ᄒᆞᆺ시나그신인이발
ᄒᆞ여현시상봉황셩이는ᄂᆞᆯ을어나이옥제을갈
간속ᄒᆞ엿다가분쟝의패전ᄒᆞ파해기두어엿년
일시쳠ᄒᆞ여상승게즐오시게되리이다이곳저번
오ᄒᆞ나명일쳥의징드ᄲᅢ쳥산의울나불드리ᄒᆞ
나니상승을명일야의월식을되여좋은ᄯᅡ다디시
ᄃᆞ쳥의길으로다시오ᄉᆞ쇠현님이옹나드리실의
도화와이야얄안의빅텅산주겸말선현낭와졍의초
쳐길셔동풍이경디졀흔ᄒᆞ여밤의보련바의달은
며화션낭이축비을반디레는기다리다가ᄆᆞᆺᄎᆡ션연재

키ᄒᆞ고ᄒᆞᆫ가지로샹이오ᄅᆞ지셤겨하강ᄒᆞ미아니ᄒᆞ면나ᄂᆞᆯ로쳔ᄂᆡ
거나ᄂᆞᆫ동우쳔낭의안복이상연ᄒᆞᆫ지라ᄡᅥ조반지고
옥축을잡아월셩낭은가위병불허축이초다이ᄎᆞᄌᆞ
정ᄎᆞᆺ셩인의잇실ᄎᆡ오ᄒᆡᆼ수ᄅᆞᆯ셔어야ᄒᆞ다셩낭이
내소월상궁에다반인간ᄒᆡᆼ수을보시고ᄒᆞᆫ상유구ᄂᆞᆫ
이졔야보시조다ᄒᆞᆷ이본ᄎᆡ산축경회을조아ᄒᆞ여이
곳의별당을지으니실노그ᄇᆡᆨ셩신뎡리을순ᄒᆡᆼᄒᆞ미
오ᄎᆞᆯ보ᄂᆞᆫ쳥누ᄂᆞᆫ달은곳에잇서나상궁은주경ᄒᆞ소
ᄉᆔᄒᆡᄂᆡᄒᆞᆫ념을인도ᄒᆞ여동으로ᄇᆡ여보을가ᄒᆡ일죄
누각이국히화ᄒᆡᄒᆞ여본ᄇᆡᆨ사궁의몽뎡장원ᄒᆡ되사되
조와정셩ᄒᆡᆼ주와나ᄒᆞ리이어ᄒᆞ더라ᄒᆞᆫ념이소월ᄒᆡ
외ᄅᆞ당실내ᄂᆞᆫ이광이변주조ᄅᆞᆯ이되ᄅᆞ쾌락이별

안리되엿다 ᄒᆞ더니 이제 션낭은 낫지 별실 ᄌᆡ되
ᄃᆞ 밤이 별ᄂᆞ 흥ᄌᆞ가 회되도다 션낭이 ᄃᆡ소ᄋᆞᆯ 쳥은도
로니 ᄒᆞᆫ나라 흉방 삭운 금나 분외ᄃᆡ은 혜여 라ᄀᆞ 축
옥와 왕쳬 회된 되너니 고ᄎᆞᆺ은 텬본인 과와 소온 그ᄅᆞᆯ 왜
허믈ᄉᆞ 모혀 엿서 나쳥이 소ᄒᆞᆫ 쳥수의 손보기 울사
앙회 아니 분그랑 돌런지 북울 별혀 ᄃᆞ시 거혀 눈화 군올
러로 죄혀 비쳐 이제 령이아 히 실ᄋᆞ 쳬오비 ᄌᆞ세 ᄒᆞᆫ울
열나지 못혀 엿삽다 ᄒᆡ앙이 웅이 박이 되얏구 ᄌᆞ축하
네외 화혀 밉 못혀ᄅᆞ 계신도외 쳬금혀ᄂᆞᆫ 완현 나외 고금
혀ᄆᆡ밀 가ᄉᆞ 그보혈가 혀나이라 ᄒᆞᆫ님이 쳥가의 ᄃᆡ온 쳥
현혀 ᄃᆡᄅᆞᄋᆞᆯ이 오이 ᄂᆞ쳐 ᄉᆞ혀 ᄃᆞ이ᄅᆞ 추ᄅᆞ 동ᄆᆞ혀 냥
이냥이 ᄌᆞᄅᆞ 현으로 ᄌᆞ추ᄒᆞᆷ다 삼ᄋᆞ로 ᄂᆞᄃᆞ우 회ᄋᆞᄂᆞᆫ 가ᄌᆞ

ᄃᆞ동ᄌᆞ울ᄃᆞ 치ᄃᆞ니 ᄋᆞᆫ 산으로 가셔 왕ᄂᆞᆫ 벽 향산은 강녁
● 아ᄅᆞᆷ다온 뫼에 잇ᄂᆞᆫ 동ᄌᆞ 방얼은 일변 즁가 혈
이라 이 쳬상은 은쟈리의 옥시에 잇ᄂᆞᆫ 쳔은 표박
즁젹으로 평ᄎᆞ상 붕ᄒᆞ여 이 뫼의셔 달을 ᄃᆡᄒᆞ매
엇지 과아ᄒᆞᆫ 비리오 쳥의가 ᄌᆡ은 박ᄎᆞ나 본ᄌᆡ 블ᄒᆡᆼ
ᄒᆞᆫ 심ᄉᆞ을 ᄉᆞ젼ᄒᆞ여 ᄒᆡ표을 셔ᄉᆞᆫ 호우ᄌᆡ을 불ᄀᆡ셔
내ᄌᆞ을으 ᄉᆞᆫ쇠이의 쳔이 잔을 잡아가ᄂᆞᆫ이 삼비을 마신
후 ᄎᆔ거을 ᄉᆞᆫ쇠여 옥ᄌᆡ을 도ᄃᆡ 한번 불ᄭᅴ 실ᄆᆡᆼ은
ᄒᆞ여 ᄌᆞ목이 잔즁ᄒᆡ며 병상의 잡ᄃᆞ탁이 ᄉᆡᆼ은 이나라
나ᄃᆞ록 번불ᄭᅴ 쳥충이ᄂᆞ 되야ᄂᆞ 셩일블이ᄂᆞ 즁ᄒᆡ여 쇽
ᄒᆞᆷ을의 잔나븨의 연이 ᄉᆞ귀ᄒᆞ나 쳔낭이 만ᄎᆞᆯ을 보아
명변이 블ᄭᅩᆺ 쳠ᄆᆡ을 ᄌᆞᆫ조 보라 ᄭᅦ여 상쳥은 알

녕하여온ᄎᆞᆯ의소ᄉᆞ나〻하셩을통낭하여무
쳑이경녕하나참담한구름은봉두의이허〻흠
흰바ᄃᆞ몸은모뤼을날니며경각간현지회녕하고
월쳑이무량하며신흉벽녕이ᄭᅮᆯ〻이욱는ᄀᆞ타한
이남은션경등하며등〻차환이샹〻실셕이라헌낭
여옥제을낭ᄌᆞ구샬잣ᄎᆞᆫ삼이〻여하의허ᄀᆞ니
이외ᄎᆞᆫ을주하여이시ᄂᆞᆫ션요희회욱제청여음이빈
쿤의오광하여하여괴〻이여티가한남이리붕믈ᄂᆞᆯ
냥의되복는법은가위현진이감충혈지라그숭보
일흉이무어시라하아는낭이소이ᄌᆡ월이국호ᄂᆞᆫ시
슉구숙되이여하현월시ᄅᆞᆼ국모랑이굴지경이여평
미래혀연지요키뫼슉란이쇠여혀ᄃᆞ기울이〻애해

며삼장을취오지못ᄒᆞ니어다한님이졍셩께•이셩낭
이유쳐을한님을못녀왈•우쳐을범인이블소
허나지현다터오니상공이시험허여보쇼쇠한님이
옷ᄂᆞᆫ바다한번블며쳥아현쇼키엄의울며여담
현지되셩낭이블ᄂᆞᆫ키피허녀우쳐을들ᄂᆞᆫ왈으날
이아비ᄎᆞ인을바나ᄂᆞᆫ며허ᄂᆞᆫ다서한님과ᄂᆞᆫ왈쳡이
허저엽스나웁굴의ᄂᆞᆫ숏단이잇셔ᄉᆞ랑계찰의ᄉᆞ
앙회아날지라이제상공의부시ᄂᆞᆫ우쳐셩을ᄃᆞᄐᆞ
미랍한살별지쳥이잇세나상공이블ᄀᆞ의병의
왈이잇실가허나이이우쳐복ᄂᆞᆫ병을벼녀ᄃᆞ신ᄃᆞ
다일ᄋᆞᆫ긴이쇼실못지잇실가허나이여인허

녀즉어미되여옥즈권을셜낭이불어가즈졔니
한님의춤단은불일지니허눈셰죄잇는지라져마
갓음쏠의향도허니셜낭이란왈상군은진디쳔
상셜이라횡의밋돌비이어호소이다이의아심허
뵈조타오니라차일붓허연일쳔낭을차져올회
올술견허니지거항허도홍승이상조허여운준평
평의모될갓흐나라만스되을임허여운우지낙
운허쾌이너허니한남이생오변색을비루이야
허나낭라칠헌지일사이나허신되아니허니못스
연이조셜낭이술잇슬뗏밀의허엿시되군즈의슨리믐
달쏠기물갓툰소인쇄스디문달기슐맛라허니쳘

이ᄂᆞᆫ왜팽셩재거ᄅᆞᆯ맛나ᄒᆡ심ᄒᆞ여물원ᄒᆞᄂᆞᆫ범부의ᄐᆡ
신회아니ᄒᆡ허나나ᄂᆞᆫ일상군은더닫다바리지아
시변ᄒᆡᆼ의바다강히재거ᄒᆞ야ᄆᆡ뢰ᄇᆡᆨ변을의양ᄒᆞᆫ
너엇지강히쳥수쳔기ᄅᆞᆯ유난ᄒᆞᆫᄒᆞᆫ쳥을ᄒᆞ라호
톡ᄒᆞ며부ᄂᆞᆫ지연은ᄐᆞᆯ일이무궁ᄒᆞ온줄일ᄇᆞᆫ장은
다ᄇᆞᆫ심의을ᄇᆡᆺ회ᄂᆞᆫ저거ᄇᆞᆼ우ᄅᆞᆫ아트술ᄒᆡ한냠이쳥
과의그거리을ᄒᆞᆷ쳔ᄒᆞ나그녀모물옥의버쎠나므ᄅᆞᆫ이
ᄐᆡ너가ᄃᆡ라일ᄂᆞᆫ한남이션영을ᄂᆞᆫ졔이ᄅᆞ너쳔냥이
본박의박ᄅᆞᆫ베죄ᄯᅥ엄거ᄅᆞᆯ묵륵이ᄅᆞ하요ᄒᆞᆫᄒᆞ다가
ᄇᆡᆨ셩산을과시왼상ᄀᆞᆫ죄신수으ᄅᆞ나길서거ᄒᆡ이ᄅᆞ
와옥갓ᄒᆞᆫ돌이ᄂᆡ갓ᄌᆡ빛ᄂᆞᆫ군시기ᄊᆡ여날ᄇᆞᆫ빗에주
ᄇᆡᄋᆞᄅᆞᆯ너ᄉᆡᆼ어ᄃᆞᆼ기ᄋᆞᆯ소ᄅᆞᆼ과여ᄒᆡᆨ상의인ᄌᆡ

쉬ᄂᆞᆫ셔홀연편신이혼미ᄒᆞ여잠간가비ᄒᆞ니일
위보살들이금가셔징을오욕갓흔안모와굿ᄂᆞᆫ눈
셜의쇠거얼의여한넘을보ᄂᆞᆫ길에음ᄒᆞ여왈문
창쳔은빌내무양ᄒᆞ야한념이와아ᄒᆞ여부라ᄒᆞᆫ
뒤보살이우여왈홍난쳥은어ᄃᆡ두ᄂᆞᆫ계ᄒᆞᆫ셜여
와쥴기난ᄂᆞᆫ빈조ᄂᆞᆫ남ᄒᆡ려운●이라상쳬ᄒᆡ명을
밧아무즈셩의병셔을그졔와게졀ᄒᆡ리왓시니
보졔쳥생ᄒᆞ고상계로도라오라연후의셕장을
드러바회을치며왈길이밧분ᄃᆡ빗비도라가ᄌᆞ
여ᄃᆡ한념이그소리의놀나ᄭᆡᄃᆞ니쇠상의누엇ᄂᆞᆫ
항쵸쥭비ᄒᆡ며쳑ᄒᆞᆫ권이되여잇시니짐여순빗외
너그나쳐울셔쳔냥의짐을겨어ᄂᆞᆫᄂᆞᆫ홀가셔보ᄒᆡ

본ᄒ엿ᄃ오ᄃ ᄒ거ᄂᆞᆯ 쇼온이 ᄃᆞᆫᄀᆞᆫ의 도리와 가져온 ᄎᆡᆨ
을 내여 ᄌ시 보니 현상부쥬형의 쳔문지리와 용병
강마ᄒ는 법이라 셤어의 ᄃᆡ희ᄒ여 ᄀ셔이와ᄉ을
ᄡᆞ토ᄃ비 혼ᄂ 본ᄃᆡ ᄌᆞᆫ 명니여 신현지라 한번 보기
효연히 득ᄒ여 달통ᄒ니 심슐 장재ᄒᆞᆫ 후야 심ᄒ
ᄒ며 밧거셔 신ᄡᆞ은ᄂᆞᆫ 호키니 여낭ᄃ 현셩음으로 조통ᄒᆞᆯ
복ᄒ니 셩낭의 셩음이라 반겨 창을 열고 보니 셩낭
낭리 화환으로 일월석을 쇠여 이로ᄂ 쳔연ᄀ리ᄂᆞᆫ게
궁ᄒᆡ 랑ᄒᆞᆫ 쳔상의 아란듯 평령ᄒᆞᆫ 힝보ᄂᆞᆫ 젹니
셩여 견우셩을 ᄎᆞᆺᄂᆞᆫ 듯ᄒᆞᆫ 님이 ᄃ회ᄃ화 ᄒ여 술을
잠은 셜낭이 ᄋᆞᆺᄂᆞᆫ 쇼왈 금일 본복의 부ᄌ 물인ᄒ여
상군ᄋ 두ᄌ 현집의 두번 강남ᄒᆡ서여 영ᄌ

되못ᄒᆞ엿기ᄅᆞᆯ 츈야되여 왓ᄉᆞ온니 회울으옵ᄉᆞ셔
쇼쳐ᄒᆞᆫ남은나는 젹박ᄒᆞᆫ라 라이리 낭갓ᄒᆞᆫ 번죄ᄂᆞᆫ
는사ᄅᆞᆷ갓ᄒᆞ니울 상붕이 속오되오ᄆᆡ 셩신울마리
보ᄅᆞ부족이 도라오니 올랑이 압ᄒᆡ든죄의 이심아
의신즁이 차지불 ᄉᆞᆺᄒᆡ지 못ᄒᆞ엿도다 쳔낭이 ᄒᆞ물
상즁죄쳐 ᄒᆞ시몬 감ᄎᆞᆨᄒᆞ 거ᄂᆞ와 지거ᄅᆞᆯ 알ᄋᆡ고로
ᄒᆡ엿더니 부졀지 ᄎᆡᆨ을 어 갓치ᄒᆡ셔 나가 ᄒᆡᆫᄒᆞᆫ 몸이
라부의 빈어더 진죄을 ᄌᆞ라 치 못ᄎᆞᆷ네ᄂᆞᆫ ᄒᆡ아 진실
노홍누어 ᄋᆞᆺ지 영ᄅᆞ 어ᄅᆞᆯ 견ᄒᆡᆼ신이 상홍ᄒᆡ이 ᄒᆡ 일모
호족시나 오ᄒᆡ ᄒᆡ엿더니 언을 비셜 ᄌᆞ나 빈ᄃᆡᆫ보리
ᄒᆞᆫᄅᆞ 졍번의오 비 상홍이 ᄉᆞ 변이나 강남ᄒᆡ 가셔 시몰ᄅᆞᆫ
평연 리화올 좀 리 못 ᄇᆡ으 ᄒᆡ와 ᄒᆡ엿더니 고로 ᄒᆡ다 거ᄅᆞᆯ

사내자가라하리잇가 한남에게 초례한 셜낭을 이르되
화관하여 셜낭이 초월 단셩 백년의 한가한 날이면
미 못되거늘에 즐양 아의 엇지 무록이 잠을 자리오
강수 월식에 보암즉할지라 심양평의 나이가
월식을 잠간 보시고 청전의 집으로 가 순이며 한남이
혼연 허락하고 난인이 병비하여 강수의 내가 나 십년명
순의 죽월은 백순의 걸 넛곤하 순정옥의 과면은 벽가인
책을 놓나 편에 나난지자 셜낭이 월식을 바라보며
순장의 왼 보하며 한남을 도라보아 월강 남리여 매랍
청허는 노키잇시다 청운 채하게 강신 답채이 일절하
담백만 꽃한가 하나이다 하고 나촉을 한촌 버구을
날내며 한구조을 복도내기가여알

벡구야누말이혀도 달도희고너도희니 한님이
나리사와 시비흐믹네물너라 화당이
강상의나는빅구야 나도셩뎌젹뎍으로
나을보고져뎌빌아 경이즁뎌에왓노라
한낭리셛낭이착고한국조식블은후뎌조즁뎌을
엇그뎌스장녀거나다가십앙쳥의을운어강흔이
젹보현뎌고기강은어셛블빗라앗고갈갑는●소뒤
디옷을동는지라셛낭이나간의계헤여탄왈강
속는동으로호고고월당은셰인로도지지니고왕금기
의려논가인이졍은의을운지벗고환를일늬온바는
지끔쥬젹을모은을굿뎌업고미신공산의진남이와
졸남의두셴셩이고즁즁빙을조스혀어연셩이여엇

지가랑곳에 나ᄯᅡ오 홍의 괴이 우에 ᄉᆞᆯ을 세이 잇시여 상
공운 잠간 왕님게 ᄉᆞ나믄 달을 보아 한담ᄒᆞᄉᆞ니다
한님이 운나ᄂᆞᆫ 집의 이르니 엄의 별경을 쉬ᄌᆞ른
둥촉이 휘황ᄒᆞᆫ데 한님을 아쾌 술이 반강의 쌍낭
이홍우을 가져 방중약을 알외여 음ᄌᆡ 화궁ᄒᆞ며
축단이 쟁룡ᄒᆞ여 심상 ᄎᆞ핀 홍치 아니라 한님
소년 재상으로 올젹ᄒᆞ다가 ᄎᆞ일 왕ᄂᆡ ᄎᆞ안 홀기ᄒᆞ니
ᄌᆞ연 도라가 물너흐 ᄇᆡ 빈을 보ᄂᆞᆫ 져한님의 평계 험다
셜낭의 쳥ᄒᆞ고 ᄒᆡ므졸 ᄈᆡᆼᄒᆡ여 낭당ᄒᆞ여 일을 ᄒᆡ 물ᄂᆞ이ᄒᆡ
너기ᄂᆞᆫ졔 빈ᄃᆡ 라일ᄂᆞᆫ 가을 비소ᄂᆞᆫ ᄒᆡ여 존일리 오지비
내ᄒᆡ난지라 한님이 다란의 ᄆᆡ에 이안 젓더니 셜낭이
축라을 보내며 뭇가 물발ᄒᆡ난지라 한님이소

상을 자자ᄒᆞ여 ᄉᆞ오ᄇᆡᄭᅡ 신후슈ᄒᆞᆫ을 인ᄒᆞ여
짐간 잠드럿다가 야심후 ᄭᆡ여 보니 베ᄂᆞᆫ리 인철
무졈을 현디 월셕이 빙쳥이라 ᄒᆞᆯ 연셜낭와 인
뫼ᄂᆞᆫ 의얌ᄒᆞ여 내 봄을 일어 ᄃᆞᆫ고 쉬보지 아니ᄒᆞᄂᆞᆫ
ᄒᆞᆯ노 셜낭의 졍을 ᄭᅳᆫ쳐 가며 ᄂᆡᆯ니 바라보ᄂᆡ일디
자환이 쳥ᄉᆞ초롱의 불ᄒᆡ 쥴ᄃᆡ외 일ᄅᆡ시여
쳬ᄂᆞᆫ 이거ᄒᆞ더나 아온니 이다 ᄃᆞᆫ니 아니라 평이ᄂᆞᆫ 적가 보
ᄃᆡ쳐ᄒᆞ던 셜낭이라 낭인이 쳐초상ᄌᆡ의 반가오ᄂᆞᆫ시ᄀ
ᄒᆞᆫ여ᄉᆞ왈 ᄂᆡ 쳥이 올 ᄌᆡᆨ이 ᄒᆞᆫᄌᆞᆫ 잇다가 셜낭을 ᄎᆞᆽ
가더니 낭은 어대 올가ᄂᆞᆫ냐 셜낭이 ᄉᆞ이ᄃᆡ 왈 아심쳔
쳥ᄒᆞᆫ 월ᄇᆡᆨ 쳥ᄉᆞ롱ᄒᆞ여 상ᄒᆞᆼ의 ᄃᆞᆫ ᄀᆞ 졍ᄉᆞᆯ을 위

로ᄒᆞ지ᄂᆞᆫ길이며못ᄒᆞ고이내상ᄉᆞᆼ이심방ᄒᆞ
실ᄌᆞᆯ아ᄒᆞᆺ시리가이와낭인이되소ᄒᆞ고집의도라와
자평ᄒᆞ며ᄒᆞᆫ담ᄒᆞᆯ시션낭이홀연호창ᄒᆞᆫ거ᄉᆞᆨ
이잇ᄉᆡ셩인의수혼이잇거ᄂᆞᆯᄒᆞᆫ남이의아본일
낭이어지비창ᄒᆞᆫ거ᄉᆞᆨ이잇ᄂᆞᆫ고셔낭이ᄎᆞᆨ연ᄒᆞ와
쳥이평ᄉᆡᆼ의자리을ᄭᆡᆺ나ᄇᆡᆨ년을기약ᄒᆞᆫ제ᄒᆞ더
나이제의외상ᄉᆞᆼ을ᄭᆡ나기로울젹ᄒᆞᆫ심ᄉᆞ을외
로ᄒᆞ니상ᄉᆞᆼ이경졔로ᄒᆞᆫ번도라가시ᄂᆞᆫ날은다시
뵈울기약이엄ᄂᆞᆫ지라아녀와쇄ᄒᆞᆫ소평의심ᄉᆞ을
니게ᄒᆞ하소ᄒᆞ되잇ᄃᆞᄂᆞᆫ연이일을ᄉᆡᆼ각ᄒᆞ구밀ᄂᆞᆫ
달이ᄒᆞᆫ번동줄ᄂᆞᆫ이즈러지ᄂᆞᆯ감ᄒᆞᄒᆞ여심ᄒᆞ을
지평ᄒᆞ지못ᄒᆞ미고로ᄒᆞ미라ᄒᆞᆫ남이평ᄌᆞ의ᄯᅩᄒᆞᆫ

로창하며월낭이에지나의조화갈로만술아
난본셔낭와을싱몸병해못하여오나엇가일을몽중상
공이쳥운을타는복방으로가시며쳥운을조화보아
한가지로가물밋흘하시더니울연낙쳥이긴동줄
내박덕이쳡의때더울치기를나인이번다시쳡
의게불길하나상중은불주환경하실가하나이
다한낭이쳠옴반향의왈금월로술은황상탄일
이라황귀해미양황상을위하여사방셩자의로귀
순퀸하여서이몽해핫되고이얼가하노라하낭이더
옥술나월쳥이비록불민하여상군의영화로
이회지하시믈깃거아니하엿다가는롱근이혹엘벗사이
이복나쳡술을바올딩각하여쳥계과하는거슨아참

와 비나 젼벽의 나 벌ᄂᆞᆫ 때 몬 혓ᄉᆞᆫ 편일이 라 굳건 어려 범
ᄒᆞᆯ 비주 다 너 우덤 때 실 버 아 나 나 형이로도 나 남빙
의 ᄒᆞᆫ 세 잇서 너 일ᄂᆞᆫ 훙이 난 조 라 고 ᄯᅢ이 어 난 조 우 지 ᄋᆞᆫ
번 난 ᄒᆞᆫ 줄 고 소 퇴 올 주 ᄒᆞᆫ 져 ᄒᆞ논 즁 잇 ᄭᅴ 경 ᄯᅢ을 빗
쳐 여 보 이 나 만 퇴 거 ᄋᆞᆯ 고 핑을 보 ᄂᆞᆫ 즁 일 ᄂᆞᆫ 좀 ᄌᆞ ᄂᆞᆫ 좀
일 우 여 라 고 진 ᄒᆡ 여 죽 다 ᄒᆞ 나 횡 ᄉᆞ ᄒᆡᆼ 기 나 소 순 글 고 비
귀ᄌᆞᆯ을 갓ᄒᆞᆫ 솨ᄀᆞ을 ᄲᅡ나 지 못ᄒᆡ엿더니 어ᄌᆡ 상궁을 ᄎᆞᆷ
험 것뫼 미나 향ᄒᆞᆯ ᄒᆡ오미 가ᄋᆞᆯ 죽고 집다 달음 엄
난 지 과 횡이 오 ᄒᆡ 픠 ᄒᆞᆫ ᄇᆞᆫ 소 제 ᄒᆡ ᄂᆞᆫ ᄒᆞᆫ 번 ᄉᆞᆯ 죽 여 시 ᄂᆡ
급 이ᄅᆞᆯ ᄌᆞᆨ우 ᄂᆞᆫ 다 여 ᄒᆞᆫ이 여ᄂᆞᆯ 지 다 디 미ᄂᆞᆫ 즁 때ᄋᆞᆼ ᄂᆞᆫ 지난 ᄌᆞᆼ
감ᄋᆞᆯ 아ᄉᆞᆼ 니 도 ᄭᅴ 며 몸을 감ᄌᆞᆯ 가 ᄒᆡ 니 이다 ᄒᆞᆫ 님
이 쇼 원ᄂᆞᆯ 나 ᄂᆞᆫ 날 상의 ᄯᅳᆺ ᄃᆞᆯ 일 오 대 상 은 내 ᄯᅳᆺ ᄃᆞᆯ

보좁비이갓도다만일은ᄂᆞᆫ을엽에도라가는날
엇지낭ᄌᆞ를이ᄌᆞᆯ이오ᄆᆡᆺ당이슈퇴을가지보라ᄃᆞ라
을가치헐지니ᄇᆡᆨ셩산ᄃᆞᆼ군달이나의ᄆᆞ음을알
이나평생을어그러오이ᄂᆡ업슬가허노라셜낭이사
ᄅᆡ왈군ᄌᆞ일은언이쳔년불리라심계의삭여ᄃᆞᆫ케
리되이다열이ᄋᆞ시쳔의우녀ᄌᆞᆫ긔의안에슈화라허
여ᄉᆞ시나이는움즁을조롱ᄒᆞ미라상군이잉의적
각으로오신길이ᄆᆡ올엇지기물을셧ᄉᆞ가시리가
쏘한ᄉᆡᆼ각ᄒᆞ기상군이우으로낭에ᄎᆞᆫ당이계신
칙인이계시나의논치아니시ᄆᆡ거연이술게ᄒᆞ신후
ᄉᆞᄃᆞ불평이ᄒᆞ이는쳡의소원이아니로ᄇᆡᆨ셩션ᄒᆞ와

조용이 쇄왈 보께나 반갓데 다녀올가 허나니 반일을 환
쳥을 덜업다 여살을 견디 쳥이 곰일 붓데 깁히 슉
줄허여 병을 기달일가 허나 이다 한님이 그산의
병활현의 논다지 혜을 아름다이 녀거 상아이면
허나라 쳔냥녀 다시 견을 골어 쳔허여 술이 반듸
흉뮈 쳡슉연 술허여 우녀 왈 니가 쳐기 제리 아니올낭
이보살와 곳신이 아니라 되는가 인이 슉사 강히의 담
연이 재츄의 남은 줄 잇시 분 실노 상졍이 여 되시 인이
육병허되 남당여 허다 줄나 실상은 업슈 곰아 는가거
울헤 출치 못허리라 낭이 촛디 허녀 조화낭 쳡되
훈을이 가득허여 왈 쳡은 일루돗 손의 근 모의 두
쳬대불 변치 못허는 아양의 흥쳔은 조로 통신

방셰이셧시나혀믈내쳥은큰유졍의출
아즁뎍의누츅혀본녀쳥을젼내곤아ᄂᆞ니잇가하
일은근본하의ᄂᆞᆫ일을즁샨의방셰쳥즁의가주혀
근즁모의두쇄을회후혀은네엽스변쳥의신셰진
퇴의부당이파근촐쳥이실변쳥주의일쳠힐
혤은주지직회여준ᄂᆞᆫ의굔의잇비너기믈바되ᄂᆞ
왼근댱은우의박쳔뎌ᄂᆞ이아니즈ᄎᆞ이다튄넘이춘션
울근븟근ᄃᆞᆫ리도부샹현비라셜당의육비올달혀여
나삼울거도최나비샹훈쾽이읡혈파여더욱숩혀라
튼념이기용변색얼낭어훙낭으촐연변이엄ᄒᆞ다
심담이샹조혀여쳥인베즐욱잣다밀셔기국션
빈ᄒᆡ하ᄒᆞᆫ샹이의ᄅᆞᆫ들셔그즉ᄅᆞ품으올보아잇더니괴댱게호

[illegible]
나욱해라나의열찰이적어그뢰이나일느붓히낭
의신세ᄅᆞᆫ해볼더욱ᄌᆞ은에여기며뫼양허이벅
벼더허더라낭에홍낭의얼울ᄌᆞᆺ또한미감즘여
누쵸울훈울너더와여차쇄조거지상해니쇄낭울
엇거쾌쾌란ㄹ하회울보라
경황훈젼뎌쵹끼 영욱인즁라하강쵹
이쉬낭한남쵁거현지반년이되엿더니현뎌탄일
의뒤ᄉᆞᆫ쳔하혀실셔한남학ᄉᆞ낭창흑으로쳑거편연
지여뎌뎔의그인뎌울잇게곳쥴ᄉᆞᆫ데부서랑으로비뫼
서ㄹ불으시어난부상휘그게기ᄉᆞ거예부의쉬서랑을
비조라기여한낭이려란의잇여어볼부뫼쇄가

셔울졀ᄒᆡᄃᆞᄉᆞᆫ란이어병을ᄲᆡᆺᄃᆞ려이ᄅᆞ니한님
이북ᄒᆡᆼᄉᆞᆫ온후병조의나발ᄒᆡᆼ셔시야의셔낭을
작별ᄒᆞ고ᄯᅥ동ᄒᆞᆫ을다ᄒᆡ고셔낭의징의이ᄅᆞ니셔낭
이봄외의나와ᄢᅢᄒᆞᆫ당화평후셔낭이ᄎᆡ하니
한님에집ᄎᆞᆺ쳥연얼네본데삿ᄎᆞᄉᆞᆫ광졍이아
니나우연이낭을ᄡᆞᆫ나ᄎᆞᆺ샤상종ᄒᆞ엿ᄉᆞ나ᄢᆞᆺ치ᄇᆡ
송별이엽술줄물나시려오마ᄂᆞᆫ일별의운산이
나ᄂᆞᆫ혤일을ᄉᆡᆼ각권ᄒᆡ마음을금어거어렵ᄂᆞ고다셜
낭이ᄃᆞ리울ᄎᆞᆺ저궁ᄒᆡ엉리못ᄒᆡ더니화ᄒᆞᆫ이ᄇᆡᆨ죽을
울울넌ᄒᆡ낭어ᄒᆡᆼ결을ᄇᆡᆺᄃᆞ려ᄒᆞᆫ낭을권ᄒᆡ니ᄒᆡᆫ남
이번다ᄉᆞ시ᄃᆞ스ᄉᆞᆫ즐ᄒᆞᆫ잔을ᄒᆡ타낭을죽ᄂᆡ되날낭은이
한울ᄒᆞ라별ᄒᆡ인을리언어ᄒᆡᄃᆞ심보ᄅᆞ몸을브르ᄒᆡ여후

의ᄒᆞᆫ님왈 네이제 도와가려ᄒᆞᆫ낭이 어지한 ᄊᆞ애ᄉᆞᆯ이

영취부족케ᄒᆞ나 노낭이 소한벽ᄃᆞ 부연이 되여늘연

동신ᄒᆞ여 책상내의 거문고을 나와 두어곡조을

탕아 기곡조의 왈

오동취고ᄒᆡ여
죽실이로다
남광도즁ᄒᆡ여
죽편열이로다
강운ᄲᆞᆯᄒᆡ여
강촌욱ᄀᆞ도다

오동엽ᄒᆡ체ᄃᆞᆫ의 셩ᄒᆡ여
키열뷔이러ᄭᅥᆺ책도로
가ᄇᆞᆫᄒᆞᆫ한울리ᄀᆞᆯᄅᆞ로 날외여
죽현이묵ᄭᅵ이로다
강ᄌᆞ등이ᄲᅮ ᄃᆞᄒᆡ여
가ᄋᆞ물이욱 ᄃᆞ헤도다

봉황이긜ᄃᆡ여 ᄲᅵ여 봉황이와셔모ᄃᆞ
울거리로다 우ᄂᆞᆫ소리올이다 로ᄂᆡ
무한ᄉᆞ연삼ᄉᆡᆨᄒᆡ여 무한혀연가여 심층녀ᄅᆞ기 칠이니
횡명일이로다 배고달을 칠ᄒᆞᆫ호ᄃᆞ다
ᄒᆡᆼ인과이ᄲᆞᆯᄂᆡᄒᆡ여 길가ᄂᆞᆫ ᄉᆞ람이ᄂᆞᆫ 허ᄲᆞᆯ을 내기ᄲᅥ
ᄎᆔ즙ᄀᆞᆷ죵동ᄎᆔᄒᆞᄃᆞ 공도ᄋᆞᆯ좆ᄂᆞᆫ도 리가지ᄒᆞᆫ다

쳔낭이 거문고 타기을 ᄆᆞᆺ치ᄆᆡ 거문고을 밀치고

축하의도라일헤누쉬방을저니탕남이부향헐
정헤을꿋치거여련우나임의야심헌거라작별ᄒᆞ
ᄃᆞ도라올서낭이싸와나와목ᄃᆞ이섯다가동ᄌᆞ의하직
헤풀보ᄃᆞ누쉬방ᄐᆞ헤여목ᄂᆡ에인용천으로ᄎᆞᆺ여작별
왈상공을뫼셔길을상가라하날이도오신즉다서
보헤여와녀ᄃᆞ라갈죽욕ᄃᆞ혼몸이백천상ᄒᆞᆫᄎᆞ랑
왕네헐가허노라동헤여시ᄎᆞᆫ청ᄃᆞ연헤여항우거삼
하직ᄃᆞ가니이뉘싱월출ᄎᆞᆯ이자상거나뫼ᄃᆞ욕연이
왜헤전산천이척박허ᄃᆞ천바람이ᄂᆞᆫ술헤여심해올
동ᄒᆞᆫ는지라농천남이썬낭을불ᄎᆞᆺᄎᆞᆯᄃᆞ랑의일이ᄋᆞᆫ
울저ᄒᆡᄃᆞ희낭ᄂᆡ을혀ᄎᆞᆨ헤여동평텰서분ᄃᆞ국일질

봉룡이ᄂᆞ랑ᄒᆞ며 부ᄉᆞᆯ이나ᄃᆡ궁ᄌᆞ가의샹졀이셜
산이되여ᄌᆡ오ᄎᆞ싱ᄂᆡ울가셔ᄃᆡ쳡의양톡ᄒᆞ고셕
시울라ᄒᆞ엿더니ᄎᆞ졍은ᄒᆡ여ᄌᆞ이ᄃᆡ이ᄂᆞᆫ뎐왈이
초오ᄒᆡ니ᄒᆞᆫ님이둥근울라되ᄂᆞᆫ졈믈의나와산쳡
졍ᄃᆡ울ᄌᆞ평ᄒᆞ더ᄂᆡ여ᄂᆞᆫ꺼부치ᄂᆞᆫ우울목근듯
강ᄒᆞᆯ펀아쉭온우ᄒᆡ울ᄉᆡᆯ이ᄋᆞᆺ듯ᄌᆞ술남기ᄌᆞᆫ
쏠이엿의여ᄎᆞᆯ둥의니화ᄆᆡᆫ빌ᄒᆞᆫ듯ᄒᆡᆼᄒᆡᆼᄒᆞᆫ경
ᄃᆡ와당고헨셜경울ᄃᆡᄒᆡᄂᆡ보ᄂᆞᆫ두셜낭의ᄋᆞᆼ되ᄂᆡ
웃ᄂᆞᆫᄃᆡ퇴ᄂᆞᆫ와앙고ᄒᆡ니ᄌᆞ쾅이조라와쾅둥울ᄌᆡ
줌여졀ᄅᆞ이잡울일우지못ᄒᆡ여다사옹비옹졍졈믄듯
다ᄃᆡᄂᆞᆫ소ᄅᆡ나ᄂᆡ일ᄅᆡ소련이낭ᄃᆡ쇄둥라일결
쳥너울쪼울으ᄃᆡ와실의ᄃᆞᄂᆡᄒᆞᆫ남이아ᄂᆞᆫ

한원을펼셔어음이낭ᄌᆞᆫᄃᆞ월계파옹이남
ᄌᆞ것거아나고이곳션낭이러반가오미극ᄒᆞ여분왈이
어지이곳의이ᄅᆞ니션낭이추연ᄃᆡ왈쳡이년소ᄒᆞ여
일즉이어별이부어셰물모로마가상공을뫼셔장
구이셔나지아날가허엿더니일조의동몽ᄇᆡ흠을셕
거얀ᄒᆞᆫ죽을부로되홍듬이여셔ᄒᆡ여눈물이업
쇠가되오되묵한현평회을발솜ᄒᆞ기붓그러이런연을
못ᄒᆞᄂᆞᆫ중ᄋᆡ이가서너더욱호칭ᄒᆞᆫ중북궁산셜의가
시ᄂᆞᆫ횡셕이안젼의버려반다시번ᄂᆡ봇가실듯ᄒᆞ기
리라ᄒᆞᆫ셜봉의그ᄯᆡ현셤손올위로ᄅᆞ와오미니이다ᄒᆞᆫ
남이션낭의글을다ᄃᆞᆯ의여연ᄒᆡᄯᆡᄒᆞ여너눈쳔ᄒᆞᆫ날
을혼ᄃᆞ러ᄃᆡ여왈ᄂᆞᆫᄃᆡ부어술과거ᄉᆡ나니아ᄂᆞᆫᄒᆡ

등의다시잠을일우지못하여ᄉᆡᆼ각하건대셜낭이
작별시의한마듸말이업더니봉충의발병할줄
알앗시되본ᄃᆡ여도광불이하더라열일무순이컨
후여경셩의이르니이쪽반년에라다시술하의뫼셔
일신이안한하고을승이로터무순한가터몰일갓튼
독긋기몰바지아니시랑다하왈황상이황혼을다
시빌솜히신득현쌔어고그려하난논시랑이니금
달의원의왈일이실분키단워리의되허떳시와원
간실치되여줌병을여져변괴스리못할지라병을
반들가눈노라울상쉐쑈한지삼권헤더라이알서
명이길하의는은헤운케상이인정을순필하은

효을위우ᄒᆡ사며갈아ᄉᆞ키면이젹거고효중이야
더욱외뫼유화ᄒᆡ은둥신이더욱빗나아효다온 (이옥)
탁마의더욱당을ᄒᆡ고보겸은량ᄒᆡ을감효저보던
다ᄒᆡ며경을이르며라편은리괴을젼ᄒᆡ시효을다ᄒᆡ
며겸을보차ᄒᆡ라ᄒᆡ시며은젼이옹ᄂᆞᆯ서나시랑이황
공감은ᄒᆡ며감귀나되물엇ᄯᅳ리목ᄒᆡ더라상서다ᄉᆞ
황훈을빌솔ᄒᆡ사갈아ᄉᆞ되겸의이왕평훈듯며
시나현ᄃᆞᆫ무리연이라다시ᄉᆞ양ᄒᆡ말나시랑이ᄅᆞᆫ옷ᄉᆞᆫ
은이되ᄂᆞᆫ나현ᄃᆡ되일란을병ᄃᆞᆯᄉᆞ되일ᄒᆡ라ᄒᆡ서
고상이좋기ᄒᆡ시며ᄒᆡ단을상ᄉᆞᄒᆡ시고벽게연혁의
황네ᄒᆡ라ᄒᆡ시나외의십븐부형ᄒᆡ더라황효ᄒᆡ봉

ᄀᆞ쳑의 ᄌᆞᆷᄌᆞᆯ 보족 즉 ᄌᆞ주ᄅᆞ게 봐을ᄉᆞ 당ᄒᆞ고 ᄆᆞᆫ이 ᄌᆞᆫ
ᄅᆞ자셕이 칠ᄅᆞᆯ 등ᄒᆞ나 펴지 ᄅᆞ일ᄒᆞ ᄀᆞ옹보좌ᄅᆞᆯ ᄅᆞᄒᆞ여ᄋᆞᆯ
로숙녀의 우ᄒᆞᆫ ᄒᆞ미 업ᄉᆞ니 시랑이 심ᄇᆞᆫ비 흉ᄒᆞ여
삼일화 즉지비을 맛ᄅᆞ 어일은 운소ᄒᆞ 렴실의 ᄀᆞ라
와 불평ᄒᆞᆫ ᄉᆞ셕으ᄅᆞᆯ 빼ᄅᆞ의 ᄌᆞ스며 ᄌᆞ옹이 무쳐 왈 부
인이 연일 황시울 보시니 위인이 업더다 ᄒᆞ나 ᄌᆞ온시
ᄭᅥᆷ음 부당ᄒᆞ니 시랑이 탄왈 힝이 부인을 힌갓 부쇄
ᄎᆞᆫ을 알지 아니 지거지 삼ᄒᆞ 준 분우ᄌᆞ 알아 부ᄅᆞ이ᄒᆞ
니 복인의 숙퀴을 두어 ᄒᆞᆷ의을 ᄏᆡᄒᆞ여 삼국을 도쳘
되아니ᄒᆞ니 이어지 형일 잇ᄃᆞᆫ비 ᄅᆞ오 ᄉᆞ체 되왈 이니
ᄌᆞᆫ외인 복이 불다 숙시ᄒᆡ 물라옹 시지 졀이나 살
ᄏᆞᆯ쌀이 ᄒᆞ지어 심쳥인 ᄅᆞᆷ은 ᄌᆞᆫᄅᆞ 쳥공 ᄃᆞᄒᆞ아

저못ᄒᆡ거든이제군ᄌᆡ의바리으시부조ᄒᆞᆫ용렬
아ᄂᆡ군을뒤ᄒᆡᄒᆞ동냥의옷얼장단을부로시니고
의ᄒᆡᆼ을엇다지못ᄒᆡ나이다시랑시ᄒᆞᆫ왈군부명은
조부독이ᄲᅡ젓시나ᄒᆞᆫ일가도의패망ᄒᆡᆯ장본은차
이라부인의ᄯᆞᆯ은다ᄲᅡᆫ의뒤의ᄒᆡᆼ실근도뢰의당연ᄒᆞ
홍욕은아니로다ᄒᆞ더라

쳥남ᄲᅡᆫ외ᄉᆞ칠쳔 ᄒᆡᆼᄉᆞᆼ모간비오별당

이쉬그리남ᄲᅡᆫ이모반ᄒᆞᆫ여조애관경ᄒᆡ니상이ᄎᆞᆫ심ᄒᆡ
ᄉᆞᆫ병부상쉬울텽모을오우ᄉᆞᆫ상을벼ᄒᆡ시ᄂᆞᆫ관자
평ᄉᆞᆫ즈군으로편장군구홍순을비ᄒᆡᄉᆞᆫ비일편편의
인편ᄒᆡ여ᄲᅧᆫ부을의논ᄒᆡ시ᄃᆡ여어ᄎᆞᆫ슌소욕평이ᄉᆞᆫ제
을으니ᄒᆡ디고디남ᄲᅡᆫ이평절ᄒᆡ여남방실연군을노ᄃᆞᆺ

샹으로 옹변 관이니 라 불어 바 니 상이 모으 ᄉᆞ를 변화
목즁ᄒᆞ여 기쳬을 불기 당ᄒᆞ여 치 ᄒᆞᆫ 변을 발ᄒᆞᄂᆞᆫ 순 귀
슉위영을 ᄲᅢᄎᆞ 쇠ᄒᆞ엿ᄃᆡ 가 샹이 ᄋᆞᆫ 심ᄒᆞᆫ 환을
낭자 노와 졔ᄃᆡ 신을 보아 의논ᄒᆞ 실ᄉᆞ 오ᄅᆞᆯ 작ᄒᆞ고 ᄉᆞᆯ
남ᄇᆞᆫ이 ᄋᆡ 조 불ᄒᆞᆫ 황ᄒᆞ 잇ᄌᆡ 못ᄒᆞᆯ ᄂᆞ 롱 슉이 강ᄒᆞᆫ ᄃᆡ ᄯᅢ
금슉와 다 도지 안ᄉᆞᄋᆞ니 ᄲᅡᆺ 당 ᄋᆡ 위 ᄒᆡᆫ으로 무 이 ᄒᆡ 즈 힘
으로 ᄃᆞᆺ 도지 못ᄒᆡ 울 괴 ᄂᆞ 신의 소 젼은 ᄒᆡᆼ 이 ᄂᆞᆫ ᄌᆞ의 근
소ᄋᆞᆯ 조 발ᄒᆞ여 오 ᄒᆡ 쳬을 직ᄒᆡ ᄂᆞ 솔 복 순을 ᄐᆡ 인 ᄒᆡ
여ᄂᆞ ᄒᆡ 조 호 우ᄒᆞ여 달 베여 기 츈 ᄒᆡ 여 ᄂᆞ 면 그 ᄯᅢ ᄂᆞᆫ 쳔
병을 오 ᄒᆡ 베 조 ᄒᆞᆯ 가 출 나 아 다 ᄂᆞᆫ 시 량이 북 북 ᄎᆞ ᄋᆞᆯ
운 ᄋᆞᆫ 샹의 쥭연ᄂᆞᆫ 삼키 ᄋᆞᆫ 변의 ᄒᆞᆫ 도 ᄒᆞᆫ 되 나 ᄃᆞ 션 고 ᄋᆞᆷ
이 ᄃᆞᆯ ᄋᆞ 동 ᄋᆡ 신의 ᄉᆡᆼ 각의ᄂᆞᆫ 뎍 쳬 ᄀᆞᆷ ᄒᆞ여 샹 쥭

울쥬시며ᄯᅵ오래ᄉᆞ고만ᄒᆞ여ᄎᆞ지아닐거시
오이제츙옥군ᄉᆡ오뤼운령ᄒᆞ여창졸간응변ᄒᆞ여
가장어ᄒᆡ올ᄃᆞᆺᄒᆡ온녀제군의로쇠ᄒᆞ여군령을쳠
검ᄒᆞᆫ변기을죽음ᄒᆞ여ᄲᅮᆯ우고면을ᄲᅡ으ᄭᅵ조흠을
가ᄒᆞᆫ나이다참ᄅᆡ령ᄉᆞ노흘이츅왈령국의츅ᄉᆞ시복
울보존ᄭᅵ온나시을당ᄒᆞ여몬져얻신ᄉᆞᆼ이ᄉᆞ온졸ᄭᅵ하
제운니이제몬져도쉬을나되오ᄉᆞ군졍을조발ᄒᆞ며병
기울즐비ᄒᆞ면은연ᄭᅵᆫ령이ᄉᆞ통ᄒᆞᄭᅵ어더ᄒᆞ되잇가신
의ᄉᆞ편은ᄉᆞ욕경이의상ᄉᆞᆯ을아지ᄆᆞᆯ가ᄎᆡᄭᅵ사ᄅᆞᆫ민
심을진이ᄒᆞᄭᅵ올을가ᄒᆞ나에다낭시당이우축
왈군일ᄅᆞ도당의곤이다만ᄃᆞ식지계을축징ᄒᆞ이나
신이리ᄒᆞᆫ러양ᄋᆞᆫ변ᄒᆞ이ᄎᆡᄭᅵᆫ심ᄉᆞ통을병녀ᄒᆞ여

방비ᄒᆞ리아니ᄒᆞ엿더니 가히업도다 왜도적이 ᄒᆞᆼ복을 빌거ᄂᆞᆯ
온쥬장졸의 ᄉᆞᆯ오ᄃᆡ 이여ᄃᆡ러ᄒᆞ여 이ᄉᆞ가ᄂᆞᆫ길ᄎᆞᆷ이오
셕일은 남방오랑ᄏᆡ 불라셔 쳘구두의 무리ᄒᆞ여지
이제평의빗츠로 온젼ᄒᆞᆫ 군주ᄭᅴ손을 경홀이 못
ᄒᆞ리니 도젹이 작년ᄒᆞ면 군ᄉᆞᄅᆞᆯ 막으리니와 민심이
쇼동ᄒᆞ믈 냥쳥쥬이장 ᄎᆞᆺ엿지 마오ᄃᆡ ᄒᆞ나 ᄭᅩᄉᆡ랑
메ᄂᆞ이 옷ᄂᆞᆫ 왈 상궁의 발 숨은 됴보ᄅᆞᆯ 어ᄯᅥᆨ이 ᄑᆞ쟈 ᄲᅬ
쇼동ᄒᆞ믈 근심ᄒᆞ시ᄂᆞᆫ 후일은 ᄭᅮᆷ상죄이 나ᄉᆞ나 이ᄂᆞᆫ 그럼
ᄌᆞᆫ을 긔ᄃᆡ여다 ᄃᆞ라나 니망ᄉᆞ당ᄒᆞ믈 아지 못ᄒᆞ더 군ᄉᆞ의
다노군이 별연ᄃᆡ로ᄒᆞ여 왈 셩상이 심의 불민ᄒᆞ믈 보
로시ᄂᆞᆫ 국ᄎᆞᆼ 손을 맛기시나 ᄆᆞᆼ일 조ᄒᆞᆼ츙의 소견을
발ᄒᆞ여ᄂᆞᆫ 필히 민심을 소동ᄒᆞᄂᆞᆫ 죄ᄂᆞᆫ 법을 말

태ᄐᆡ디라ᄒᆡ나ᄒᆡ뒤신이여ᄒᆞᆫ일은주이응셜ᄒᆡ
난재타상이유예ᄒᆞ니걸ᄒᆡ셔나을가뢰국왈상소을
임외반ᄃᆞ시아니ᄒᆞᄂᆞᆫ조부손을ᄐᆡᆨ엄ᄒᆞ라ᄒᆡ시이로
쳥의셔조부손을보내시ᄃᆞ니어지ᄂᆞᆫ간의소문이나
지아니ᄒᆞ여잇ᄂᆞᆫ신외조졍의ᄂᆞᆫ이의ᄌᆞᆨ손소유경은문뫼
지티잇손옹ᄋᆡ소유경으로ᄎᆞᆼ보손을겸ᄒᆞᆫᄒᆞ여분부
병을거나ᄒᆞ여ᄌᆡᆨ졍을담보게ᄒᆞ여ᄭᆡᆺ당ᄒᆞᆯ가ᄒᆞ나
이ᄒᆞ상이의ᄋᆞᆯᄒᆞ시나시당이집의도리와복손ᄭᆡ
칠ᄋᆞᆫᄎᆞᆼ손을ᄃᆞ여ᄃᆞ로ᄒᆞᆷ졍의ᄌᆞᆨ손을ᄲᆞᆯ숩ᄂᆞ여근심
심ᄒᆞ여왈ᄒᆡ외ᄒᆞᆫ문을보고나ᄒᆡ비ᄋᆡ남두의범
ᄒᆞ여반ᄃᆞ시남방의병화잇사올지라이ᄌᆡᆨ지ᄋᆞᆫ
근심이로소이다원외ᄋᆞᆯ기비록조졍ᄉᆞᆫ의간셤지

이나나군일인지졍쎤훤연믄믹지져영소니만
일븐불평ᄒᆞ여남평혈리평이되년게가ᄒᆞ뎌쟝이
되리오서랑이내려울츄대됨응낭수의디월소
져강츄의술쉐의한내존을빠나오니볼츄기니라
웅눌의홍병이여신ᄒᆞ여그노뤼울듯ᄂᆞᆫ길ᄀᆞ름을
빨혀대쾨아다뢰빨줄더불수의뻥화의일이잇
사라ᄒᆞ던이그빨이불힌이빠줄가ᄒᆞ나이다윗뇌듯
ᄃᆞ놀나왓네소한이울염나천베라그내존의일흠이
부여시며듯런뒤홍병이찰인편가우도라서당이
벼셩만나면슨연다쳐조평아한슨단이며그울민
훌녀라ᄒᆞ읗소변ᄒᆞ면조유울ᄃᆞᄒᆞ며존연다슨울녀ᄃᆞ
꽤못ᄒᆞ엿서불일됴여ᄋᆞᆼ이왓슬글계내쎡울가

ᄒᆞ여 권련ᄒᆞᆯ 거시 아니나 양의 연낙이 잇다 ᄒᆞ
ᄃᆞ 진의을 세울진ᄃᆡ 실신ᄒᆡ 분가지 아닐가 ᄒᆡ냥
쇽이다 ᄒᆡ오 제ᄒᆡ라 시랑대 숙명ᄒᆡ ᄃᆡ당의도
ᄒᆡ가 보ᄇᆡᆫ연 거셜낭의 ᄉᆞ연을 ᄃᆞᄒᆡ너 복연될네
절졍이 ᄆᆞᆫ니 갓거ᄂᆞᆯ 내 존의게 실신ᄒᆡ여 비상거
원이 엄졔ᄒᆡ화 강남 홍의 일을 ᄉᆞᄅᆞ지 금가지 잇거
못ᄒᆡ나 사ᄃᆡ이의 셔ᄂᆡ와 ᄇᆡᆨ셜션은 쇽이다 되오ᄆᆡ
ᄅᆞᄒᆞ 시랑이 숙병ᄒᆡ ᄃᆞ편일 갓던 광독로 봉셔을밧
려 ᄇᆡᆨ셜션을 다리화 강동로 보ᄂᆡ시여 셜낭이
시랑을 나ᄲᆞᆯ ᄒᆞᆫ죡 병조다 ᄂᆞ졍ᄒᆡ ᄃᆞ죡비을 닷ᄃᆞ리
을 보리 아니ᄒᆡ ᄃᆞ낫지 년ᄇᆡᆨ셩산을 바라보아 십회올
니어지 못ᄒᆡ ᄃᆞ죡이ᄋᆞ 보기 심히 간졀ᄒᆡ여 숙사이지

나며얼골유산이박한새나밤이변환등을대하여
잠을일우지못허더니일은강쥬지벽불으나명
을일가카트러뜨거아니허니낭을보네드운든이
병을뭇거들션낭이의아허여싱각허되지부의
후험다낭시랑외박정허미다의외라그후외뜻
지잇시변게여지주춘이투션허여육을감추허지
온허여뒤손이만념이불드온드허여난간을지여원산을
바라보아허허탄식허더니낭복황되시랑외셔간
을전허게늘크게발거드손이무슨허물뭇드부중인
부울무드른혹디간을네끼쇠외직강갈돠시뒤
일벌운산의육안이여몽이자홀결변니외즉
몽이글물허중황혼가기울일운드른연

셰셔다 쳠혀여 이갓지 차하혜나 참디숟로다
항일 본부의거 별혀여 냥의 일홈을 기젹의
셰여 더니기 간아와 산가 이제 존당의 뻥올 밧
ᄌᆞ와 거이마을 보기나니 무궁평회ᄂᆞᆫ 화축상졔
의다혀 혀여 무잉회 환을 ᄃᆡ혀 노리ᄒᆞᆫ 녀러라
혈냥이 간좌 되힝장을 뫼혀 쳐야 오니 좌셜 시의
이축ᄒᆞᆫ 소욱졍이 황병을 밧ᄌᆞ와 택평을 탐지
지더여 날마다 나좌의ᄂᆞᆫ 혀나 재디젹혜 강셩혜ᄂᆞ
픠축이 무궁혜기온 위조ᄃᆞᆯᄂᆞᆫ니가 ᄃᆞᆺ지 안ᄉᆞ언ᄉᆞ려
만을ᄂᆞ 무례ᄒᆞᆫ 거동이 무숫ᄒᆞᆯ ᄉᆡᆼ아니 재제 ᄉᆞ욕인
운녀에 위ᄡᆞᄂᆞ 축화 편비 일인을 베여 볼ᄂᆞ두하기
깃파의 안닐을 지라하혼이 항비혜ㅣ 잇시면 ᄒᆡ 잇ᄂᆞᆫ오

나옥뒤ᄒᆡ니ᄅᆞ셕부의잇ᄂᆞᆫ옥ᄀᆞ북원ᄎᆡᄒᆡᄂᆞᆫ즙ᄒᆡ디ᄀᆞᆫ을
뵈기ᄂᆞᆫ단뎐셩을보젼케ᄒᆡ쇼셔ᄒᆡ엿더라
상이표문을보시ᄀᆞ졔신을모으ᄉᆞ곤복을의논ᄒᆞ시더
니쇼평츅표문에올나와남만장졀의동츅호을
지나당의셩을함몰ᄒᆡᄀᆞ계림형양지경의둔취
작당ᄒᆡ여민간의노략ᄒᆡᄀᆞ빅셩을살ᄒᆡᄒᆡ니변방
졔군이일죽졀비치못ᄒᆡ엿다가소동이위단ᄒᆞ여기
셰불가당에죄즙ᄒᆡ마ᄋᆞ로셔ᄒᆡ엿더라아지못게ᄒᆞ라편
도의셔되장을보기여셩ᄌᆞᆼ현가하회을쳐남ᄌᆞᆯ라
셰친평ᄒᆡᄂᆞᆫ원호오일ᄎᆞ국ᄒᆞᆯ셔